



2019 열린세미나 자료집

(녹취록 포함)

누구를 위한 누구의 교회인가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해

2019년 12월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사도직연구소

[차례]

| | | |
|---------------|-------|----|
| 인사말(녹취) | ----- | 03 |
| 축사(녹취) | ----- | 05 |
| 발제 | ----- | 07 |
| 논평 | ----- | 30 |
| 패널 논평 (원고+녹취) | ----- | 40 |
| 종합 토론(녹취) | ----- | 55 |

▶ 일러두기

이 파일은 서울평협 평신도사도직연구소가 2019년 10월 19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에서 주관한 '2019년 열린 세미나' 내용을 PDF 파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파일에는 세미나 당일 자료집에 들어 있는 주제 발표문과 지정 토론문 외에 패널들의 토론문, 자유토론, 개회식 인사말과 축사 등을 녹취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 본당의 '사목협의회' 또는 '사목회'는 '본당 사목평의회'와 같은 용어임을 밝힙니다.

인사말¹⁾

손병선(아우구스티노) 서울평협 회장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는 몹시 바쁜 주말 일정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손희송 서울대 교구 총대리 주교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손희송 주교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경모 신부님을 비롯한 여러 신부님, 수녀님, 원근 각지에서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권길중 전 평협회장님과 광주평협의 신동렬 회장님, 춘천평협 임효순 회장님, 부산에서는 이충원 빈첸시오회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수원평협의 정태경 회장님은 대군단을 몰고 오셨는데,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제로 의미 있는 세미나를 주관해주신 이창훈 연구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평협 평신도사도직연구소에서는 올해에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담론을 이끌어내고자 세 차례 토론회를 갖기로 기획했습니다. 세 번째인 오늘은 다양한 계층의 패널들을 모시고 열린 세미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의정부 평협이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해 조직 확대 개편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데 이어서 전주에서는 지난 토요일에, 부산에서는 오늘 똑같은 시간에 같은 주제로 신부님과 수녀님들을 의무 참석시키는 가운데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광주에서는 11월에 같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내 여러 교구에서도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과 5G 인공지능 시대라는 세계사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융합, 협업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만,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살피주는 사목에서 함께 가는 사목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 사목 또한 공의회 정신을 상징하는 시노달리타스의 일상적 구현 속에 협력 사목, 관계 사목을 활성화해 통합 사목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소통의 핵심인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가운데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

1) 이 인사말은 녹취한 내용을 풀어 정리한 것입니다.

께 참여하여 각자가 자기 신원의식과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공동식별을 통해 책임 있는 행동으로 함께 걸어가는 시노드적 교회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미나 역시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려고 마련한 자리이니 만큼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나눔 속에 토론 문화의 새로운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신 한민택 신부님, 손정명 수녀님을 비롯한 패널 여러분과 올해에 여러 차례 주제 발표자로 함께해 주시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는 최현순 박사님과 사회로 함께해 주신 주원준 박사님, 연구소 연구위원,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1)

손희송(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공동합의성’이란 무거운 주제로 세미나를 하신다고 해서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궁금했는데 이 강당이 꼭 찰 만큼 많이 오셔서 놀랐습니다. 기왕에 오셨으니 중간에 쉬는 시간에 슬쩍 가지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딱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이웃사랑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계시면서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교인 저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신자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라’하는 뜻에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 뜻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반쪽짜리 이웃사랑’만 하고 가게 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합의성으로 번역되는 시노달리타스(synodanlitas), 이 말마디와 함께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대조사회’라는 단어입니다. 독일의 신약성서신학자 게하르트 로핑크(Gehard Lohfink)의 말인데, 그는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는가』(분도출판사)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는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는 과거에 일방통행 식으로 모든 것을 획일화하던 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원하신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세상이 그러듯이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지어서는 안 되며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다양한 음악 소리를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의 ‘대조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의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하나 떠오른 단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1) 이 축사는 녹취한 내용을 풀어 정리한 것입니다.

의 일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손과 발 등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도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형성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원활한 소통의 첫 번째 조건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듣는 과정 없이 말하게 되면 실수와 오해가 빚어지고 이로 인해 갈등과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하기에 앞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보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끼리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먼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서로의 말을 듣고 대화를 나눌 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사의 첫째 부분인 ‘말씀 전례’에서 독서 말씀 듣고 시편으로 하느님께 찬미하고, 복음 말씀과 강론을 듣고 신앙고백으로 응답합니다. 말씀 전례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주님께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데에는 먼저 잘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서로 간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되는 대조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세미나가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에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공동합의성: 저마다 제 길에서, 그러나 함께 가는 길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한 신학적 성찰 -

최현순(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서론

1. 교회의 삼위일체론적 기원: ‘하느님’의 교회
 - 1.1 ‘하느님의 교회’, 메시아 백성
 - 1.2 대화와 협력: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하느님의 활동방식
 2. 공동합의적 교회의 구성적 요소
 - 2.1 말씀과 성령
 - 2.1 성찬례
 3. 신자들 모두의 교회
 - 3.1 성경에 나타난 공동합의적 교회의 모델
 - 3.2 지체들의 근본적 동등성: 하느님 자녀됨의 품위
 - 3.3 유기적 공통 책임성
 4. 공동합의적 교회의 구체적 실현: 온 인류를 위한 교회의 실존
 - 4.1 공동합의성의 제도적 표현: 평의회(consilium)
 - 4.2 제도 실현을 위한 매트릭스: 공동합의성의 마음(synodalitas affectus)
- 나가며: 현대사회의 누룩이 되는 길

서론

“이렇게 크고 많은 구원의 수단을 갖춘 모든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omnes)은, 어떠한 생활 신분이나 처지에서든,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성덕에 이르도록 저마다 자기 길에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다.”(「교회헌장」 11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이 성사들 안에서 어떻게 보편사제직을 수행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길에서 거룩함이라는 공통의 소명을 향해 가고 있다고 선언한다. 이 텍스트 자체만으로 보면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각 지체들의 소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문장은 이 백성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이 사제직을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려는 콘텍스트 안에 위치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를 일부 지체들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지체들을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교회’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자 하였으며, 이 전체로서의 공동체를

‘하느님 백성’이라고 묘사하였다. 이 공동체는 지체들의 단순한 우연적 집합체가 아니라 하느님이 불러 모으시되 서로 연결되도록 하신 일종의 ‘유기체’와 같다.¹⁾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받아들이신다(사도 10.35 참조).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다.”(『교회헌장』 9항)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앞에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을 연결시키는 끈이 같은 믿음, 같은 사랑임을 뜻한다. 『교회헌장』 8항이 교회를 가리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구성원 모두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몸, 하나의 유기체라는 교회 이해는 이 교회의 실존 방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하나는 전체로서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각자 저마다 제 갈 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공동체가 유기체인 한 모든 각각의 지체들의 역할이 분화되어 있어 각자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역할 수행이 다른 지체의 역할 수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함께 감’과 ‘저마다 제 길에서 제 몫을 함’은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가 살고 활동하는 메커니즘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한 이러한 교회론적 밑그림에 부합하는 개념으로서 현재 전 세계 가톨릭교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공동합의성(synodalitas)’이다. 이제는 거의 이 개념의 대헌장(magna carta)인 것처럼 유명해진, 교황 프란치스코의 2015년 <세계주교시노드 설립 50주년 기념 담화>는 학문영역에서만 아니라 사목현장에서까지도 공동합의성에 대한 관심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되었다.²⁾ 공동합의성은 현재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시대의 징표’로 여겨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다.³⁾

1) LG 7항 참조. 요한 바오로 2세도 교회적 친교를 유기체에 비유한다. “교회적 친교는 살아 움직이는 몸에 비길 수 있는 ‘유기적’인 친교와 매우 흡사합니다. 실제로 교회의 친교는 즉시 그리고 동시에 소명, 신분, 직무, 은사, 책임의 다양성과 보완성(상보성)을 그 특성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다양성과 보완성으로 모든 평신도는 각자 몸 전체에 대한 관계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몸 전체를 위하여 전적으로 독특한 공헌을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20항.

2) 교황 프란치스코, “Discorso in occasione della commemorazione del 50° anniversario dell'istituzione del sinodo dei vescovi, (2015.10.17)”, AAS 107(2015), 1138-1144. 교황 프란치스코와 공동합의성에 대해서 참조: A. Borrás, *Communion ecclésiale et Synodalité selon le pape François*, CLD, 2018. 공동합의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 참조: Ormond Rush, “Inverting Pyramid: The Sensus Fidelium in a Synodal Church”, *Theological Studies* 78(2017), 299-325; Gilles Routhier, “La synodalité dans l’Eglise locale”, *Scripta Theologica* 48(2016), 687-706; Eloy Bueon de la Fuente, “Il fundamento teológico de la sinodalidad”, *Scripta theologica* 48(2016), 645-665; José R. Villar, “Sinodalidad: Pastores y fieles en communion operative”, *Scripta Theologica* 48(2016), 667-685; D. Vitali, *Un popolo in cammino verso Dio*, San Paolo, 2018; Id., *Verso la sinodalità*, Eidzioni Qiqajon, 2014; A. Melloni-Silvia Scatena, (ed.), *Synod and Synodality*, LIT, 2005.

3) G. Frosini, *Una Chiesa di tutti: sinodalità, partecipazione e corresponsabilità*, EDB, 2014,

이러한 흐름을 마주하여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는 2018년에 공동합의성에 대한 전반적인 신학적 논의를 집약한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이라는 책자를 발행하였다. 이 자료의 출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공동합의성이 분명히 전세계 가톨릭교회의 화두로 떠올랐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개념에 대한 오해와 그로 인한 혼란도 분명히 있다는 점이다. 이 개념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론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는 면에서 그리고 현대의 민주적이고 공동참여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대 가톨릭교회의 화두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개념을 인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나 다수결주의와 동일시되어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교회의 민주화”로 이해한다거나, 일종의 ‘의회’의 개념으로 혹은 단지 의사결정 방법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공동합의성이 갖는 본래적인 교회론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가 발행한 책자가 소개된 이후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보편교회 안에서 어떤 ‘트렌드’를 보고 흥미를 갖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주제는 교회론을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도자들과 평신도들, 특히 열정을 가지고 교회와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 평신도들에게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복음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에게 이 개념은 분명 여러 가지 거대하고 복합적인 위기 속에 있는 현재, 그리고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의 교회 및 세상을 위하여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공동합의성 개념은 분명 보편교회의 흐름과 구체적인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요청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

그러나 공동합의적 교회 개념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일종의 불안도 있어 보인다. 그러한 불안은 특히 공동합의성을 말할 때 ‘결정의 권한’에 집중할 때 나타나는 것 같다. 누가 교회 안에서 결정의 권한을 가졌는지, 주교 외에 사제와 신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와 같은 질문들이다.⁴⁾ 그러나 공동합의성은 단지 ‘결정’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가 말하는 것처럼 공동합의성은 ‘교회의 생활방식과 활동 방식(modus vivendi et operandi)’을 가리키는 말이다.⁵⁾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면서 공동합의적 교회를 한국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이해된 의미에서의 ‘수용’이 필요하다.⁶⁾ 단순히 수동적으로

5.

4) M.G. Masciarelli, *Le radici del Concilio: per una teologia della sinodalità*, EDB, 2018, 12 참조.

5)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박준양, 안소근, 최현순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 6항.

6) 수용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 다음 참조: Y. Congar, “Bulletin d’ecclésiologie. Église conciles Papauté”, RSPTh 62 (1978) 85-88; Id., “Le concile Vatican I en question”, RSPTh 68 (1984) 449-45; J.P. Boyle, Church Teaching Authority, London, 1995, 124-141; H.J. Pottmeyer, “Reception and Submission”, Jurist 51 (1991) 269-292; W. Beinert, “The Subjects of Reception”, in H. Legrand - J. Manzanares, ed., Reception and Communion among Churches, 321-146; E. Lanne, “La notion ecclésiologique de réception”, RTL 25 (1994) 30-45; G. Routhier, *Il Concilio Vaticano II. Recezione ed ermeneutica*, Milano 2006,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연구와 식별, 그리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이것이고 또 이러한 자리 자체가 바로 수용의 과정이기도 하다.

본 발표는 공동합의성의 개념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그 구체적 실현을 돕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먼저 공동합의성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 볼 것이다. 이는 교회가 여타의 순전히 인간 사회(soceitas)인 것이 아니라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하느님께 그 기원과 목적으로 두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공동합의적 교회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본 후, 공동합의성 구체적이며 지속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개인적 및 공동체적 태도도 간단히 논하려고 한다.

1. 교회의 삼위일체론적 기원: ‘하느님’의 교회

1.1 ‘하느님’의 교회, 메시아 백성

공동합의적 교회 개념은 교회론적으로 ‘하느님 백성’ 교회 이해로부터 도출된다. ‘교회’ 앞에 붙을 수 있는 속격은 ‘하느님의’ 외에 그 어느 것도 없다. 이 교회는 어떤 개인, 혹은 어떤 일부 집단의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합의적 교회 이해는 근본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담론, 그리스도교적 신론에 의한다면 삼위일체론적 담론에 기초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이전까지의 통상적 방식이었던 마태 16,16-19에서 출발하지 않고 구원경륜적 삼위일체의 전망에서 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세우신 성부의 구원계획을 사람이 되신 말씀께서 당신 파스카 사건을 통하여 이루셨으며 이 구원을 모든 시대의 모든 공간 안에서 구체화시키는 성령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된다(「교회헌장」 2-4항 참조).

“이 교회는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예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에서 오묘하게 준비되었고,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 성령강림으로 드러났으며, 세말에 영광스러이 완성될 것이다.”(「교회헌장」 2항)

교회의 시작을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고정시키기보다 인류 역사 전체 안에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바라보는 이와 같은 관점은 교회가 근본적으로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이해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교회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룩하신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며 하느님의 구원이 모든 시대와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원의 표징이요 도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로 세워졌다. 교회는 ‘메시아적 백성(populus messianicus)’이다.⁷⁾

2006, 105.

7) 「교회헌장」 9항.

“이 메시아 백성은 비록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지도 못하고 가끔 작은 무리로 보이지만, 온 인류를 위하여 일치와 희망과 구원의 가장 튼튼한 싹이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친교를 이루도록 세우신 이 백성을 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시고, 세상의 빛으로서 땅의 소금으로서(마태 5,13-16 참조) 온 세상에 파견하신다.”(「교회헌장」 9항)

이 백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고, 신분에 있어 하느님 자녀의 품위와 자유를 누리며 성령께서 그 안에 머무신다. 이 백성의 법은 사랑의 계명이며 이 백성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이다. 그러나 이 백성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지시적(auto-referentiale) 백성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할 수 있으며, 하느님이 원하시는 목적 곧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

1.2 대화와 협력: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하느님의 활동방식

‘하느님의 교회’, ‘메시아적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근본적 정체성은 그 실존에 대한 기본적 밑그림과 방향성을 결정한다. 교회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면, 교회의 실존방식 또한 하느님의 실존방식이어야 한다. 사실 ‘메시아적 백성’이라는 말로써 표현하려고 한 것 또한 교회가 이 세상의 ‘메시아’라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직무가 교회에 위임되었으며, 그 직무 수행방식은 머리에신 그리스도의 수행방식 곧 ‘섬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은 창립자이신 그리스도가 가신 길과 “똑같은 길”이다.(「교회헌장」 8항 참조)

교회와 그리스도의 실존방식에 있어서 동일성은 교회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업적인 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실존방식을 자신의 그것을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할 수 있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로 모인 백성’이기 때문이다.(「교회헌장」 4항). 교회의 기원, 모델 궁극적 목표를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일치에서 보는 「교회헌장」의 선언은 구원경륜적 삼위일체 하느님의 활동방식(modus operandi)이 곧 교회의 활동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활동 방식에서 우리는 ‘공동합의적 교회’의 근원적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⁹⁾

구약과 신약 전체에 나타난 하느님의 구원방식의 특징 중의 하나는 ‘대화적’ 방식이다. 하느님은 인간없이 인간을 구원하려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의 협력을 요청한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실 때 하느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도구로 삼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계약으로 초대하시고 당신 스스로 그 계약에 충실하시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백성을 이끄신다. 마지막 때에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실 때에는 마리아의 동의와 협력을 요청하신다. 성부의 구원계획 실현이 갖는 대화 및 협력 요청이라는 특성은 성

8) 참조: G. Philips, *La chiesa e il suo mistero nel Concilio Vaticano II: storia, testo e commento della Costituzione Lumen Gentium*, I, Milano, 1969, 125-127.

9) 참조: M.G. Masciarelli, *Le radici del Concilio*, 37-54.

자의 육화와 파스카 사건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하느님은 ‘스스로 낮춤(케노시스)’의 길을 선택하시고 끊임없이 인간에게 호소하시며 협력을 요청한다.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실현시키고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은사를 선물한다. 구원의 실현에 있어서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러한 활동의 특징은 하느님이 “인간의 협력을 지대하게 즐기시는” 하느님이라는 말까지도 할 수 있게 한다.¹⁰⁾

구원활동에 있어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이러한 ‘대화’와 ‘협력’은 삼위일체 세 위격간의 관계에 근거하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치’라는 표현이 말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세 위격 간의 관계성은 ‘하느님의’ 교회의 실존의 원인이요 모델이며 목표이다. 성삼위의 관계성을 표현하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네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나의 무게중심이 네 안에 있으며 너와 내가 하나로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임’을 가리키는데, 하느님 안에서 일치와 구분의 역동성을 표현한다. 상호내재(circuminsessio), 순환적 역동성(circumincessio), 상호관통성(compenetration), 호혜성(reciprocity) 등을 가리키는 이 단어는 ‘위격성’이 관계성, 서로를 향한 개방성, 타자에 대한 선사, 대화를 통해 실현됨을 표현한다. 따라서 위격성은 타자에 대한 수위성 주장, 혹은 승리의식에 있지 않으며 지배나 탄압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위격성이란 선사, 케노시스, 형제애, 거저춤, 친교, 우애, 등등에 있다. 실제 구원경륜 안에서, 특히 파스카 사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이 일치를 표현하는지가 잘 나타난다.¹¹⁾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일치와 구분은 역동적으로 지켜질 뿐 아니라 하나는 다른 하나를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느님은, 물론 교회에 대하여 사용할 때와 유비적이기는 하나, ‘공동합의적’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공동합의적 삶의 모델은 그 교회 앞에 붙은 속격 ‘하느님의’라는 단어가 말하듯, 삼위일체 하느님에게서 나타나는 일치와 다양성, “함께”와 “저마다 제 몫을 하는” 특징이어야 하고 이는 교회의 공동합의성 개념에서 담고자 하는 특징이다.

2. 공동합의적 교회의 구성적 요소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되, 그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없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백성을 이루어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들을 개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백성’이 되게 하는 끈은 ‘진리 안에서 하느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거룩히 섬기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합의적 교회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데, 이 두 요소가 교회를 여타 인간 사회와 근본적으로 구분하고, 또한 교회 각 구성원들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이 요소들에 대한 이해 없이는 공동합의성이 너무나 쉽게 의회적 교회 개념으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 M.G. Masciarelli, *Le radici del Concilio*, 43.

11) 이에 대하여 참조: Balthasar, Hans Urs von, *Mysterium Paschale*, trans. Aidan Nicholas, Edinburgh: T&TClark, 1990; Luis Ladaria, *Il Dio vero e vivo*, Pimme, 2004, 91-114.

2.1 말씀과 성령

진리 안에서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아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안에서 하나인 백성임을 가리킨다. 그런데 신앙이란 ‘들음으로부터’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fides ex auditu)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로마 10,17) 하느님 백성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께 대한 같은 신앙을 고백할 때 이들은 하나의 백성으로서 역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사도 2,42 참조).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 한번 발해지고 이후로는 생명이 없는 문자로 교회 안에 혹은 일부 사람만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하느님께서서는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신부인 교회와 끊임없이 대화하시며, 성령께서는 복음의 생생한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울려 퍼지도록 하시고, 신자들을 온전한 진리 안으로 이끄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머물도록 하여 주신다.”(「계시현장」 8항)

하느님이 교회와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점에서 교회는 사실 항상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공동체는 하느님의 백성에 부합한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 자체가 하느님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Ecclesia sub verbo Dei).¹²⁾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교회구성원 모두의 의무이다. 공의회는 교도권에 대해서도 “교도권은 하느님 말씀 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느님 말씀에 종속된다”고 선언한다(「계시현장」 10항). 교도권은 하느님 말씀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며 성실히 해석해야 한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들 가장 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의 우선성에 대한 강조는 공동합의적 교회를 단순히 “의회”나 혹은 “논쟁의 장”, “민주주의적 제도”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가 인간 역사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타의 일반적인 인간 사회와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다. 교회는 인간들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가시적 집단인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이고, 지상의 교회인 동시에 천상 보화로 가득한 공동체이다(「교회현장」 8항 참조). 이 공동체의 지체들이 저마다 그리고 함께 찾아야 하는 근본적 지침은 말씀이어야 한다.

교회로 하여금 이 말씀의 힘으로 살게 하는 이는 성령이시다. 성령은 복음의 힘으로 교회를 항상 젊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하신다. 또한 신자들 안에 머무르시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일치시키신다(「교회현장」 4항 참조).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체들의 의견 수합에만 집중한 채, 혹은 결정방식에만 집중한 채 하느님 말씀은 간과하는 공동체, 성령은 안중에 없는 공동체는 공동합의적 교회가 아니라 의회적

12) W. Kasper, *Il futuro della forza del concilio: sinodo straordinario dei vescovi 1985, documenti e commento*, Brescia, 1986.

인간사회에 지나지 않는다.¹³⁾

2.2 성찬례

「교회헌장」 9항이 말하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각 지체들을 연결시켜주는 두 번째 끈은 “하느님을 거룩히 섬김”이다. 「교회헌장」의 가르침에서 ‘거룩함’이 ‘사랑(caritas)’과 동일시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¹⁴⁾ 하느님을 거룩히 섬긴다는 것은 지체들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 안에 있음을 의미하고 그러한 사랑은 형제들간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친교(communio)이고, 이 친교가 교회의 삶 안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체성사이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체성사 중심의 공동체였다.¹⁵⁾

「교회헌장」에서도 성자와 교회와의 관계는 곧바로 성체성사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1코린5,7)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제단에서 거행될 때마다 우리의 구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시에 성찬의 빵을 나누는 성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1코린 10,17 참조) 신자들의 일치가 표현되고 실현된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와 이렇게 일치되도록 불리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다(「교회헌장」 4항).

하느님의 백성은 성찬례에 모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를 기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원하신 것으로서, 그리스도는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의 신부인 교회에 당신 죽음과 부활의 기념제를 맡기셨다. “이 제사는 자비의 성사이고 일치의 표징이며 사랑의 끈이다.”(전례헌장 47항)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1코린 10,17)

그러므로 공동합의적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빵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성찬례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은 성자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 안에서 기념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간다. 빵의 나눔은 말씀의 선포와 함께 공동합의적 교회의 구성적 요소이자 기둥이다.

3. 신자들 모두의 교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불평등 완전사회’로서의 교회론에서 친교의 교회론으로, 교계제도 교회론에서 하느님 백성 교회론으로 전환했다. 교회를 특정 지체들을 중심으로 혹은 그 일부 지체들을 기초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를 포함하는 전체(universitas fidelium)로서 보았다. 이러한 교회 이해는 세례성사로 인한 하느님 자녀로서의 동등한 품위, 형제애의 우선성에 기초한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교회의 기원이자 이끄시는 분이므로 그 목적이라는 면에서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 교회 안

13) M.G. Masciarelli, *Le radici del Concilio*, 58.

14) 「교회헌장」 5장; 최현순, 「거룩하지만 정확되어야 하는 교회」, 신학사상 165(2014), 234-238.

15) 참고: W. Kasper, *Chiesa cattolica : essenza - realtà - missione*, Brescia: Queriniana, 2012, 180-184.

에서 각각의 지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고유의 사명을 받아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모든 신자(christifideles)의 교회”이다.

3.1 성경에 나타난 공동합의적 교회의 모델

공동합의적교회 실현을 위한 일차적 좌표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18,13-27; 민수 11,16-17, 사도 15,1-22).¹⁶⁾ 구약에서는 모세가 백성을 다르시는 것과 관련한 일화가 나온다. 모세가 하루종일 백성들의 일을 재판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트로 그는 그가 다른 사람과 짐을 나누어지도록 충고한다(탈출 18,13-27).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백성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진실하며 유능한 이들을 선택하여 이들을 천인대장, 백인대장, 오십인대장, 십인대장으로 세워 이들로 하여금 백성을 재판하게 한다. 모세가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백성 가운데 원로를 세우는 이야기는 민수 11,16-17에도 등장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백성의 원로이며 관리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일흔 명을 불러 모아라. 그들을 데리고 만남의 천막으로 와서 함께 서 있어라. 내가 내려가 그곳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 내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을 너와 함께 짊어져서, 내가 혼자 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모세가 온 백성을 위해 짊어지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탄원하자 하느님은 백성 가운데 원로들을 세워 ‘모세에게 있는 영을 조금 덜어 내어 원로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그의 ‘짐’을 덜어주신다. 이것은 원로들이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몫을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한다.

하느님 백성이 하느님이 알려주신 길을 가는 데에 있어 어느 한 사람이 혼자 모든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러나 ‘분화된’ 책임을 갖는 모습은 신약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¹⁷⁾ 이 텍스트는 공동합의적 교회의 기준적 좌표를 보여준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할례 문제를 논하기 위해 ‘사도들과 원로들’이 모인다(6절). 논쟁을 거듭한 후 베드로가 나서서 연설하고(7-11절), 그의 말을 들은 온 회중(πᾶν τὸ πλῆθος)이 잠잠해진다(12절). 이어서 바오로의 연설이 이어지고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τοῖς ἀποστόλοις καὶ τοῖς πρεσβυτέροις σὺν ὅλῃ τῇ ἐκκλησίᾳ)’ 유다와 실라스를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한다(22절).

예루살렘 사도회의 이 모습에는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초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움직였는지가 잘 나타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냈던 사도들은 그리스도 사건의 직접 목격증인으로서 그 고유한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

16) M.G. Masciarelli, *Le radici del Concilio*, 55.

17)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공동합의적 교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참조: G. Frosini, *Una Chiesa di tutti" sinodalità, partecipazione e corresponsabilità*, EDB, 2014, 20-23; Justin Taylor, *The "council" of Jerusalem in Acts 15*, in A. Melloni-S. Scatena, (ed.), *Synod and Synodality*, 107-113.

에, 베드로의 연설에 온 회중이 잠잠해진다. 이 공동체에는 사도들만이 아니라 원로들도 있었고, 교회의 중요한 일의 결정에 사도들과 함께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히 사도들, 그리고 원로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기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밖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에 온전히 수동적이거나 방관적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성경은 ‘사도들과 원로들, 그리고 온 교회’가 ‘결정하였다’고 말한다. 권위에 있어 일종의 질서가 있되,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교회의 삶에 관련된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모습은 공동합의적 교회의 특징인 ‘함께’, 그리고 ‘저마다 제몫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2 지체들의 근본적 동등성: 하느님의 자녀됨의 품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가 같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라는 같은 품위를 누린다는 것이다. 이 지체들 각각이 받은 고유의 직무를 논하기 이전에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christifideles)이다.

하느님 백성에 대해 말하면서 「교회헌장」은 “세례받은 사람들은 새로 남과 성령의 도유를 통하여 영적인 집과 사제적으로 축성되었음”을 분명히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영적인 제사를 바치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들로서 하느님 백성의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uli Christi)’이다(「교회헌장」 10항 참조).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영적 예물을 바치는 일에 있어 지체들 간의 어떠한 차별도 없다. 하느님 백성의 보편사제직에 대한 선언에서 공의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본적 동등성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 안에서 모든 지체의 평등함을 여러 차례 강조한다. 교계제도 중심의 교회론을 극복하고 친교의 교회론, 하느님 백성인 교회에 대해 말하고자 했던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 안에서 어떠한 불평등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택된 하느님 백성은 하나뿐이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다”(에페 4,5).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지체들의 품위도 같고, 자녀의 은총도 같고, 완덕의 소명도 같으며, 구원도 하나, 희망도 하나이며, 사랑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는 민족이나 국가,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결코 있을 수 없다.”(「교회헌장」 32항)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남을 위하여 교사나 신비 관리자나 목자로 세워졌지만,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통된 품위와 활동에서는 참으로 모두 평등하다.”(「교회헌장」 32항)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됨이라는 품위는 하느님 백성 안의 모든 지체가 형제라는 것을 의미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 형제애가 그리스도교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형제들 사이에는 어떠한 종류의 ‘우월주의’, ‘지배’ ‘가부장주의’도 허락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모든 지체가 같은 하느님의 자녀라

는 동등성의 발판 위에 서 있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이기도 하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마르 10,42-45)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동등성을 넘어 ‘상호 섬김’의 자세로 제자들을 초대하신다. 그리고 섬김의 구체적 모습은 ‘발씻김’에서(요한 13,1-15) 드러나고,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섬김의 절정이 ‘타자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임을 보여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몸소 모범을 보이신 당신 제자됨의 실존방식에서 교회가 여타의 다른 인간 공동체와 같을 수 없음이 재확인된다. 교회는 단순한 사회가 아니다. G. Frosini는 “교회를 다른 인간 사회 사이에 줄 세우는 것은 거대한 잘못이고 거의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라고 말한다.¹⁸⁾ 교회의 삶의 방식, 실존방식, 곧 공동합의성에 대해 논할 때 먼저 인식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느님 백성 전체 구성원의 공통된 품위와 동등성, 형제애이다.

3.3 유기적 공통 책임성(organic co-responsibility)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이 공통의 품위를 지녔을 뿐 아니라 “공통의 활동(commune opus)”을 하도록 부름받았음을 강조한다.

“목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한 교회의 구원 사명 전체를 자기들이 독점하도록 세우신 것이 아니며 오로지 모든 이가 나름대로 공동 활동에 한마음으로 협력하도록 신자들을 사목하고 그들의 봉사 직무와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자신들의 빛나는 임무임을 안다.”(「교회헌장」 30항).

그런데 공통의 품위를 가지고 공통의 활동을 하지만, 이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도 지체들 안에는 분명히 직무의 다양성, 권위의 질서가 존재한다.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διακονία)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에페 4,11-13)

이 말씀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무가 있다는 것과 함께 이 직무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

18) G. Frosini, *Una Chiesa di tutti*, 40.

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 사도, 예언자, 복음 선포자, 목자, 교사가 세워진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곧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봉사직무(διακονία)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직무자는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봉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봉사하기 위하여 세워졌다. 다양한 직무자와 성도들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임으로써 하느님 백성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있어 일치될 수 있다. 「교회헌장」 9항의 표현대로 진리 안에서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는 직무의 다양성과 함께 은사의 다양성도 존재한다(1코린 12,1-30). 교회가 친교의 공동체, 일치의 공동체이지만 이 일치는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느님의 경우와 유비적으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일치이다. 교회 안의 일치와 다양성의 역동성을 가리키는 말이 교회의 보편성(catholicity)이다(「교회헌장」 13항 참조). 이 보편성은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퍼져있는 하나의 교회를 가리킬 뿐 아니라, 교회 내의 직무와 은사, 삶의 형태의 다양성도 가리킨다. 사실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이 보편성이다.

“이 보편성의 힘으로, 각 부분이 그 고유한 은혜를 다른 부분들과 온 교회에 가져다주어, 전체와 각 부분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일치 안에서 충만을 함께 도모하는 가운데에 자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은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인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체 안에서도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tantum ex diversis populis congregetur, sed etiam in seipso ex variis ordinibus conflatur). 실제로 하느님 백성의 지체들 사이에는 다양성이 있다.”(「교회헌장」 13항).

직무는 다양하지만 같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사는 다양하지만 같은 성령께서 주시며,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모든 이 안에서 선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시다(1코린 12,3-6; 필리 1,6 참조).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은 오직 하나의 목적, 곧 공동선(συνφέρον)과 인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각 지체들이 같은 주님으로부터, 같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직분과 은사에 따라 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몫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직무와 은사의 다양성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모은다. “은총과 봉사와 활동의 다양성 그 자체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은다. ‘이 모든 것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교회헌장」 32항)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일치는 “분화된 일치(differentiated unity)”인 것이다.

이로부터 하느님 백성 구성원들 전체의 “공통 책임성”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된다. 교회의 목표 수행을 위해서는 각 구성원 모두의 공헌이 필요하다. 교회의 활동은 마치 “합창”과 같아서 어느 한 지체의 역할이 결여될 경우 합창의 화음은 망가진다. 모두가 이 합창의 완성에 책임이 있다. 그런데 모든 지체가 같은 종류의 책임을 가진 것은 아니다. 직분과 책임에 있어서 교회는 분명히 분화(differentiated)되어 있는 공동체다. 하느님 백성이 공통의 목표에 대하여 갖는 공통책임성은 “분화된 공통 책임성

(differentiated co-responsibility)”이다. 이 분화된 공통 책임성은 직분을 받게 되는 성사의 차이에서 기초한다. 직무사제들은 성품성사로부터, 신자들은 세례성사로부터 그 직분을 받는다. 그렇다고 교회가 직무사제 위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교회는 하느님 백성 각자의 직무의 다양성에 따르되 공통된 책임 위에 서 있다.

따라서 직무사제가 고유의 권위와 권한을 받기는 하지만 직분의 차이를 세상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권력의 위계질서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교회 안에 주어진 권위는 콩가르의 말을 빌자면 “봉사를 조직하는 봉사”이다.¹⁹⁾ 즉 하느님 백성 전체가 성화와 인류 구원의 도구로 부름받았고 이에 봉사하며, 성품성사를 통하여 직분을 받은 이의 역할은 이 백성이 이 목적에 충실히 봉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또 언제나 증가시키도록 당신 교회 안에 온몸의 선익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봉사 직무를 마련하셨다. 실제로, 거룩한 권력을 가진 봉사자들이 자기 형제들에게 봉사하여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품위를 지닌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질서 정연하게 동일한 목적을 함께 추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교회헌장」 18항)

이런 의미에서 성품성사를 받은 직무자들의 일은 신자들의 봉사를 “종합하는 직무(mistero dei sintesi)”, “조화의 직무”, “친교의 직무”, “협력과 형제애의 직무”,²⁰⁾ 그리고 하느님 백성의 봉사를 조직 혹은 주재하는 직무(ministero di presidenza)이다. 「교회헌장」이 수위권을 가진 교황의 직무를 가리켜 “사랑의 전체 공동체를 주재한다” primatu Petri Cathedrae, quae universo caritatis coetui praesidet²¹⁾라고 표현한 것은 직무자의 고유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백성 안에서 그 역할을 이해하는데 지침이 된다.²²⁾ 이렇게 볼 때 하느님 백성의 공통책임성은 모든 지체들이 저마다 책임성을 갖되 그 책임의 정도와 종류가 다른, 그러면서도 그 책임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책임성(organic co-responsibility)”이라고 말할 수 있다.²³⁾ 교회는 그 “전체가 직무적인 공동체”이고, 모든 구성원이 저마다 제 몫의 책임을 받아 이 공동체의 실현에 기여한다. 여타의 인간 사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인 교회 안에서 교계제도는 다양한 지체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런 의미에서 교계제도는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의 “보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⁴⁾

19) Y. Congar, *Power and Poverty in th Church*, tr. J. Nicholson, London Geoffrey Chapman, 1964, 96.

20) G. Frosini, *Una Chiesa di tutti*, 170.

21) 이 번역은 저자의 번역임. 현재 주교회의의 번역은, “사랑의 모든 공동체를 다스린다”로 되어 있다. presidere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공의회는 교황의 수위권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배의 관점보다는 일치를 주재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서, 본 논문은 ‘주재한다’로 번역하였다.

22) 최현순,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있어서 카리타스(Caritas): 교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신학과철학』 25(2014), 245-251 참조.

23) G. Frosini, *Una Chiesa di tutti*, 66.

24) G. Frosini, *Una Chiesa di tutti*, 169-173 참조.

4. 공동합의적 교회의 구체적 실현: 온 인류를 위한 교회의 실존

교회는 온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구원의 도구요 표징, 곧 구원의 성사로서 세워졌다(「교회헌장」 1항, 48항 참조). 교회는 “하느님과 이루는 깊은 결합과 온 인류가 이루는 일치의 표징이요 도구”이다(「교회헌장」 1항).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러한 일치의 성사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의 실존방식이요 활동방식을 공동합의성이라고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혹은 정신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구체적인 교회의 삶의 자리에서 표현되어야 하며, 더욱이 그러한 표현은 어떤 일회적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공의회가 교구 사제평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주교교령 27, 교회법 496), 교구 사목평의회 설치를 권고(주교교령 27, 교회법 511조, 평신도사도직교령 26)한 것은 이 때문이다. 공의회 이후 즉시 세계 주교 시노드가 상설 기구로 설치되었고, 지역교회의 시노드, 각 지역별 주교회의, 교구 및 본당 사목평의회 등도 설치되었다.²⁵⁾ 이 모든 기구들은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해 중요한데, 본 발표에서는 평신도들도 참여하는 사목평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1 공동합의성의 제도적 표현: 평의회(Consilium)

공의회도 교회법도 사제평의회 설치는 의무화하면서도 교구 사목평의회는 권고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목평의회 설치는 신학적 필요성이 충분히 보인다. 다른 한편 consilium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 곧 의결이 아닌 ‘자문’이라는 말이 평의회 교회론적 중요성을 희석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4.1.1 사목평의회 설치의 교회론적 당위성

공동합의성은 단순히 의견을 수합하는 ‘의회주의’ 혹은 ‘다수결주의’를 교회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합의성은 “교회의 실존 방식, 삶의 방식”으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첫 자리에 놓으며, 빵을 나누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가는 이 백성이 하느님의 백성답게 살고 또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실존 방식에 대해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 수행은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지체들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공통의 책임을 갖고 공통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 모든 지체가 각기 분화된 방식으로이기는 해도 그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다고 느낄 때, 지체들의 책임감도 커지고 또 참된 의미에서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인간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함께 참여함’, ‘함께 감’, ‘임무의 공통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특히 ‘안정성 있는’ ‘공간’, ‘장’이다.²⁶⁾ 그러한 공간 중에서 전례 거행은 가장 탁월하다.²⁷⁾

25) 공동합의성 실현과 관련된 다양한 기구들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다음 참조: A. Borras, *Communion ecclésiale et Synodalité selon le pape François*, 137-173.

26) M.G. Masciarelli, *Le radici del Concilio*, 83.

목자와 하나된 백성 전체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거행하는 전례, 특히 성찬례의 거행 안에서 하느님 백성의 사제적 특성은 정점에 도달하고, 공동합의성 또한 탁월하게 실현된다.²⁸⁾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그분의 지상생애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성찬례 안에서 실현되는 하느님 백성의 사제적 수행은 이 백성의 일상의 삶 안에서의 사제적 수행과 분리될 수 없다. 두 측면은 순환적이며 호혜적 특성을 갖고 있다.²⁹⁾ 더욱이 교회의 사명은 전례(leiturgia)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섬김(diakonia)과 증언(martyria)을 통해서, 곧 하느님 백성이 처한 각각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삼위일체 하느님이 이루신 구원이 실현되도록 봉사함으로써 수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동합의적 교회는 자신이 속한 그 구체적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와 식별, 그에 따른 사명수행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한다. 이 필요성 때문에 공의회가 제안한 것이 ‘평의회(Consilium)’이다.

“각 교구마다 특별히 교구장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동참하는 사목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 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심의하며(investigare, perpendere)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expromere) 소임을 가진다.”(주교교령 27)

이에 따라 교회법에서도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교구마다 사목적 사정으로 유용한 한도만큼,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 내의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investigare), 심의하며(perpendere) 이에 대한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proponere) 소임을 가지는 사목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교회법 511조)

“교구장 주교가 사목평의회 의견을 듣고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본당 사목구마다 사목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이 주재하는 이 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 본당 사목구에서 자기 직책에 따라 사목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목활동이 증진되도록 협조를 제공한다.”(교회법 536조)

공의회가 사목평의회 설치 강화를 강조한 것은 교회의 사명 수행이 성직자나 수도자만의 일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공통된 것이라는, 즉 공통책임성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주교, 본당 사목구 주임, 그 밖의 교구 사제와 수도 사제들은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가 성직자나 평신도나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것이며, 교회 건설에서 평신도들도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평신도들과 함께 형제로서 일하여야 하며,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에게 특별

27) 전례헌장 7항: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들을 통하여 드러나고 각기 그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린다.”

28) 최현순, 「주교와 신자들의 ‘특별한 협동’(Singularis Conspiratio, 『계시 헌장』 10항): 평신도의 예언적 수행을 위한 신학적 기초, 『신학전망』 203(2019), 74-78.

29) 참조: 알베르 바누아, 『우리 모두를 사제로 삼으셨으니』, 최현순 역, 바오로딸, 2018. 44-49.

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평신도교령 26)

하느님 백성 전체, 그 모든 지체들이 공통의 사명, 곧 충만한 거룩함예의 도달과 인류구원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모든 지체가 협력은 당연하다. 이 지체들 중에는 공적직무를 받은 이들도 있고, 자신의 실존으로 하느님 나라의 표징을 사는 사람도 있으며, 현세성을 그 고유의 특징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사목평의회에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등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신도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신분, 문화, 연령층, 등등을 고려하여 위원들을 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목평의회에 위촉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들에 의하여 교구 내의 여러 지구들, 사회적 및 직업적 조건들, 개인적으로나 타인들과 함께거나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는 위치를 참작하여, 그 교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의 부분 전체가 대표되도록 선발되어야 한다.”(교회법 512조 2항)

그런데 공통된 사명 수행이라는 교회론적 당위성외에도, 사도직활동에 있어서 모든 지체들의 협력, 특히 평신도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역교회는 하느님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이다. “보편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지역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보편적 교회가 존재한다(... *in suis Ecclesiis particularibus, ad imaginem Ecclesiae universalis formatis in quibus et ex quibus una et unica Ecclesia catholica existit*)”(「교회헌장」 23항). 이 선언은 지역교회들 안에서 보편교회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지역교회들이 그 자체 충만하게 보편적임을 말하고자 한다. “보편교회는 지역교회들 안에 구체화”³⁰⁾되고 지역교회가 실현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보편교회의 모습이다(*ad imaginem Ecclesiae universalis formatis*).

지역교회 안에서 보편교회가 구체화된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데, ‘지역교회’라는 말로써 함의하는 것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점유한 교회를 의미하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인간들이 속한 삶의 자리를 염두에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교회가 구원의 성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의 징표’을 읽고 해석하고 식별하는 일로, 그에 따라 복음 선포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로 연결된다. 교회 내적인 상황에 대한 이미 잘 알려진 희망적이지 않은 통계치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사회가 처한 정치적 및 경제적 복잡한 상황, 청년들이 겪는 수 많은 암울한 상황들, 노인들, 실업, 결혼, 가정, 다문화 가정, 등등 이루 헤아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 복음선포는 선포 대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대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에 따른 선포 방식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며,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선교방식은 더 이상 현대에 적합하지 않다.

30) 바오로 6세, *Evangelii Nuntiandi* (1975. 12. 8.), n. 62. AAS 68(1976), 52.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들을 누가 수행할 것인가? 현대 교회와 사회가 처한 이 거대하고 복잡한 상황들의 대한 짐은 직무사제 혼자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에게 모두 떠넘길 수도 없다. 모세의 짐을 나눠지는 것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이기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제 수행은 직무 사제들만의 혹은 수도자들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것이다. 특히 이것은 평신도들에게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대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언한다.

“평신도들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세속 안에서, 곧 각각의 온갖 세상 직무와 일 가운데에서, ... 일상의 가정생활과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 정신을 실천하고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며, 또 그렇게 하여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증거로써 믿음과 사랑과 사랑으로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이 특별히 하여야 할 일은 자신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세 사물을 조명하고 관리하는 것이며...”(「교회헌장」 31항)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화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영혼’이 되도록 부름받은 평신도들은(「교회헌장」 38항) 시대의 징표를 읽고 해석하고 식별하고 또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자들로부터 말씀과 성사의 도움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명 수행에 필요한 것들을 받을 “의무”까지도 있다(「교회헌장」 37항). 그리고 자신들이 지식과 능력과 덕에 따라 교회의 선익에 필요한 일이라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까지도 지닌다.”(「교회헌장」 37항)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수행, 복음화의 구체적 실현인 사도직 활동에 있어 목자와 평신도간의 긴밀한 협조는 필수적이다. 그러한 협조를 위한 기구가 평의회이다. 목자들은 삶의 현장에 있는 평신도들의 협력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신 직무, 곧 백성을 목적지로 이끌어야 하는 짐을 보다 수월하게 질 수 있다. 그리고 신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결정에 능동적으로, 실제적으로 참여할 경우 훨씬 더 힘차고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신학자들은 사목평의회 설치가 교회법적으로는 권고사항이라 할지라도 교회론적으로는 충분히 의무적이라고 본다.³¹⁾ 이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구 사목평의회 설치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필요할 경우 의지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교구 사목평의회 설치를 지지하였습니다. 실제로 교구 차원에서 이러한 기구는 협력과 대화와 식별을 위한 기본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교구 사목평의회에 대한 평신도들의 참여가 광범위하고도 확고한 방법으로 적용된다면, 이 참여는 협의의 수단과 협력의 원칙을 확장시킬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사 결정의 방법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³²⁾

31) G. Frosini, *Una Chiesa di tutti*, 141

32) 교황 요한바오로 2세, 『평신도 그리스도인』, 25항

교황님은 여기에서 의사결정의 방법을 어디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일까? 이 부분은 각 지역교회마다 또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4.1.2 지체들마다 분화된 책임: 자문과 그 의미의 수용

평의회 제도와 관련있는 그리고 공동합의성에서 자주 거론되는 원리는 ‘모든 사람이 관련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논의하고 승인해야 한다’(Quod omnes tangit, ab omnibus tractari et approbari debet)는 것이다.³³⁾ 물론 이 말을 의회주의로 혹은 다수결주의로 알아들을 것은 아니다. 가톨릭교회에서 교계제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연원하는 것으로서 교계제도는 고유의 권위와 권리를 받았다(교회헌당 19항 참조). 이 권위는 백성“위”가 아니라 백성 “안에” 세워졌다. 목자의 권위는 형제가 아닌 이들에게, 혹은 ‘몸’ 밖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에게,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교회헌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호의로,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 그리스도를 형제로 모시듯이, 그렇게 또한 거룩한 교역에 세워져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느님의 가정을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며 모든 이가 사랑의 새 계명을 지키도록 사목하는 이들도 형제로 삼고 있다.”(「교회헌장」 32항)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자의 권위는 다른 인간 사회와는 다르게 이중의 관계, 곧 백성 안에서, 동시에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³⁴⁾ 아우구스티노는 자신이 목자로서 갖는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있다는 사실이 나를 두렵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위로하여 줍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나는 주교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자는 직무의 이름이며, 후자는 은총의 이름입니다. 전자는 위험한 이름이지만 후자는 구원받을 이름입니다.”³⁵⁾

이렇게 교회 안에 지체들의 다양한 직무와 역할을 고려하면서 현재 교회법이 규정한 평의회 성격의 성격을 살펴보자.

“건의 투표권만 가지는 사목평의회를 사도직의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주재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에게만 속하고 또 그 평의회에서 다른 것을 법으로 공포하는 것도 그에게만 속한다.”(교회법 514조)

“사목평의회는 건의 투표만 있다”(교회법 536조)

공의회 이후 모든 신자들이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한다는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 평의회들이 많이 설립되었는데, 서구사회의 경우 처음에는 잘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위

33)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65항. 이 표현은 531년 유스티니아노 법으로부터 유래한 원리로서 원래 세속 사회에서 사용하던 말이지만 13세기 교황들이 반복해서 사용했다. G. Frosini, *Una Chiesa di tutti*, 69.

34) Y. Congar, *Power and Poverty in th Church*, 86.

35)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340,1

기를 맞고 있다.³⁶⁾ 그 이유는 첫째, 평의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둘째, 사목평의회가 의무적인 것으로 고려되지 못했으며, 셋째 참여의 의지가 이전보다 훨씬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세 번째인 참여의지가 약화된 것은, 평의회(Consilium)라는 단어 자체가 ‘자문’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 기구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제안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유효성은 평의회 주재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평의회 주재자가 가진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³⁷⁾ 그러나 G. Frosini가 지적한 것처럼 이와 같은 태도는 평의회를 통하여 구현하려고 하는 공의회 교회의 교회론적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교회가 여타의 인간공동체와 달리 인간적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몸에 그리스도께서 봉사자를 직접 세우셨으며, 그 봉사를 위한 권위와 권리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각 지체들의 권한과 책임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교리이다. 그러나 직무자가 고유의 권위와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 그가 백성의 소리를 충분한 이유없이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공의회가 분명히 한 하느님 백성의 보편 사제직과 신앙감각에 대한 가르침(「교회헌장」 10항-12항), 그리고 신앙의 유산이 하느님 백성 전체에게 주어졌다는 가르침(「계시헌장」 10항)의 중대함을 간과하는 것이다.³⁸⁾

그러므로 교구 사목평의회가 교회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학적 의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할 소지가 있고, 평의회 의견이 위에서 든 세 번째 이유에 근거해서 소홀히 되어서도 안된다. 여기서 제도 마련과 함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합의성의 마음자세(sinodalitas affectus)이다.

4.2 제도 실현을 위한 매트릭스: 공동합의성의 마음(Synodalitas affectus)

인간 사회에서 어떤 제도이든 그 제도 자체가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다. 제도나 이념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합한 환경과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자세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이념이라도 무용지물이 되거나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있다. 공동합의성의 정신이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평의회와 같은 제도 또한 그것에 필요한 적합한 환경과 마음자세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형식에 그칠 뿐이고, 때로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마치 공동합의성 실현이 다 이루어진 줄 착각하게 만든다.

공동합의적 교회 개념을 ‘교회의 민주화’나 ‘의회’ 개념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공동합의적 교회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에 목자와 신자가 하나되어 귀 기울이고, 함께 그것을 식별

36) G. Frosini, *Una Chiesa di tutti*, 103.

37) G. Frosini, *Una Chiesa di tutti*, 104-105.

38) 참조: 최현순, 「주교와 신자들의 협동」, 74-83; D. Vitali, *Verso la sinodalità*, 69-76; Id., *Un popolo in cammino verso Dio*, 119-124.

한 후,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저마다 제 몫을 하되 함께 가는 것을 말한다. 성령을 간과한다면 평의회이든 다른 어떤 제도이든, 그것은 교회를 여타의 인간사회와 동급으로 만들어 버린다. 사실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에는 세상 안에서, 백성들 속에서 그리고 목자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시는 이는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상호 경청’의 태도가 공동합의적 교회가 되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한다. 목자이든 신자이든 모든 ‘그리스도인들(christifideles)’은 말씀에 대한 공부와 묵상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하느님의 말씀이 간과된 상태에서 이루지는 교회의 삶과 활동은 너무 쉽게 일반적인 인간사회의 그것이 되어 버린다.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은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오시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말씀과 성찬이 간과된 채 ‘함께 합의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교적 공동체가 아니다. 성령, 말씀, 성찬례, 세 가지는 공동합의적 교회실현의 뿌리이며 기둥이다.

이와 함께 평의회 제도를 비롯하여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먼저 교육의 중요성이다. 특히 평의회 위원으로 선출될, 그리고 선출된 이들의 교육은 필수적인데, 이것은 사실 ‘먼 교육’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법은 평의회 위원이 될 신자들이 ‘신앙과 덕망과 신중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교회법 512조 참조). 물론 지성적 인식과 신앙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앙과 관련된 기본 지식, 특히 계시 진리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이다. 「교회헌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왕국의 확장과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까닭에 평신도들은 계시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치밀한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하느님께 간청하여 지혜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

“더욱이 많은 평신도들이 적절한 신학 교육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더욱 깊이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신자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연구와 사색의 정당한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전문 지식을 갖춘 분야에서 자기 의견을 검혀하고 용기 있게 밝힐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사목헌장」 62항)

서구에서 평의회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평의회 위원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준비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에는 특히 말씀에 대한 공부, 그리고 공의회 문헌들 특히 「교회헌장」과 「사목헌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론 이 교육은 평신도만이 아니라 목자들과 수도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영성교육 또한 필요하다. 그

외 실무를 비롯한 ‘가까운 교육’도 필요한데 이는 ‘먼 교육’이 되어 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합의적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가 일종의 공동합의적 스타일 (synodale style)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³⁹⁾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먼저 상호 존중과 환대의 태도가 필요하다.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모두 세례성사로 인하여 하느님의 자녀라는 품위를 누리며 이 품위에 있어 모든 이가 동등하고 또 이 품위로 인해 존중받아야 하며, 모든 지체가 근본적으로 형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각각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저마다 다른 직무를 받았으며 그 각각의 직무는 서로 맞물려 작동하면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인 이 교회가 활기있게 살고 인류를 위해 받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서로의 직무를 존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되 동시에 다른 이도 그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기적 공동체의 경우 한 지체의 부족함이 그 지체만의 문제만은 아니다(1코린 12,20-27참조). 모든 지체가 각자가 제 자리에서 저마다 고유의 길을 가되, 함께 걸어가는 역동성을 보일 때 이 공동체는 참으로 공동합의적일 수 있다.

이러한 유기적 역동성이 살아있기 위해서 “대화”는 필수적이다. 대화는 각 지체와 지체, 각 기관과 기관 사이에 림프액이 흐르게 하는 통로이다. 이 통로가 없거나 기능이 마비된 유기체는 살아있는 몸이 아니다. 대화란 단순히 친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는 신앙에 의해 또 신학적 동기에 의해 야기되고 성령에 따른 삶을 바탕으로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리고 그분의 구원경륜의 특징이 대화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치 하느님의 삶이 ”대화적 삶“이요, 하느님은 삼위를 가지셨지만 대화와 사귀를 통하여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듯, 성직자와 평신도는 서로 간의 진정한 대화와 사귀를 통하여 하느님의 백성의 일치를 이룩하는 것이다.”⁴⁰⁾

사실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간의 대화는 세상의 성사로서의 교회 사명 수행과 직결되어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이미 35년 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당시에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것이기도 하다.

복음의 메시지로 전 세계를 비추고 온갖 민족과 인종과 문화의 사람들을 모두 한 성신 안에 모으는 교회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 성실한 대화를 용이하게 하고 촉진하는 형제애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자체 안에서 사목자나 그 밖의 신도들을 막론하고 한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효과 풍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명제에서 비추어 볼 때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대화와 사귀가 결핍되어 있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⁴¹⁾

39)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18항; M.G. Masciarelli, *Le radici del Concilio*, 72-81.

40)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위원회, 『사목회의 의안 3 평신도』, 한국천주교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위원회, 1984, 73항

41)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위원회, 『사목회의 의안 3 평신도』, 한국천주교200주년 기념

공동합의적 교회이기 위해 필요한 또 다른 태도는 관대함과 인내이다. 함께 가는 여정에서 모든 이가 강건하지는 않다. 넘어진 이의 상황도, 서 있는 이의 상황도 일차적으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와 관련해서 누구도 자신이 “형”이라고 자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공동합의적 교회의 스타일을 요약할 수 있는 말은 “형제애”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주종관계나, 종속성, 우월감, 지배, 열등감과 같은 단어들은 적합하지 않다.

나가며: 현대사회의 누룩이 되는 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한 지 반 세기가 지났지만, 이 공의회는 여전히 현대 교회를 위한 뚜렷한 나침반을 제공한다. 공의회가 선언한 세세한 교리적 내용들도 그렇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하나의 사건, 공의회 활동방식, 문헌의 스타일 등은 한 마디로 ‘함께 감’의 추구였다. ‘대화’와 ‘협력’은 공의회 문헌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이다. 교회 안의 대화,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 세상과의 대화, 이것은 바로 6세가 2회기 개막연설에서 강조한 것이고,⁴²⁾ 「사목헌장」 전체가 세상과의 대화를 원하고 또 그 방식으로 문헌을 작성했으며,⁴³⁾ 결론에서 위 세 가지 차원에서의 대화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사목헌장」 92항 참조). ‘대화’가 없는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형제애의 상징이 될 수 없다.

최근 들어 교황 프란치스코의 자극에 힘입어 20세기 공의회가 보여준 이러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공동합의성’이라는 단어 안에 집약되어 다시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어떤 학자는 공동합의성이 없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끊어진 길, 마지막 박자가 없는 멜로디”라고 평가한다.⁴⁴⁾ 교회론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본질적 특성이 공동합의성이었고, 이제 교회의 본질적 특성이 공동합의적이라는 것을, 특히 이 교회의 속격에 자리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본질에서 보고 있다.

한편 공의회 이후 유럽에서는 ‘하느님 백성’ 교회론으로부터 일종의 ‘교회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of Church)’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⁴⁵⁾ 교도권으로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이 개념이 “교회의 구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공동합의적 교회는 ‘교회의 민주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순전히 인간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적요소와 인간적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체이고, 하느님의 백성이고, 성령이 살게 하는 백성이고 말씀에 의해 그리고 성찬례의 거행을

사목회의위원회, 1984, 73항

42) Paulus VI, Allocutio secunda concilii periodo ineunte, in Enchiridion Vaticanum, 1, EDB, 1993, 148*

43)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특히 사목헌장이 택한 사목적 방식은 귀납적 방식이었는데, 대화는 이 방식으로부터 가능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참조: 최현순·박종구, 교회와 세상의 관계 안에서 본 연대의 신학적 의미: 사목헌장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신학과철학29(2016), 258-263.

44) G. Frosini, *Una Chiesa di tutti*, 30

45) Jacques Maritain, *Cristianesimo e democrazia*, Passugku Editori, 2007; G. Alberigo, “Ecclesiologia e democrazia. Convergenze divergenze”, *Concilium*, 5(1992), 41; K. Lehmann, “Sulla legittimazione dogmatica di una democratizzazione nella Chiesa”, *Concilium*, 3(1971), 81.

통해 역사 안에서 궁극적 목표를 향해가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공동체이다. 교회의 이런 특성은 교회 내 각 직분의 차이와 고유의 직무에 대한 존중을 요청한다.

한편 교회는 인간들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삶의 방식, 곧 모두가 주체이고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사고가 지배적인 삶의 자리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이 현대 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 백성 전체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면서 공통의 활동에 분화된 방식으로 참여하고, 분화된 공통 책임을 지고 있다는 공동합의적 교회 개념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력있게 다가온다. 더욱이 공동합의성 개념은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동합의성 개념은 단순한 화합주의나 타협주의가 아니며 다수결주의 혹은 헤게모니싸움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같은 진리의 말씀,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인류 구원의 도구라는 동일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공동합의성의 답이 다른 여타의 인간 사회와 하느님 백성 사이를 구분짓는다.

“교회의 공동합의적 삶은 특히 정의와 연대성과 평화의 표징 안에서 민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삶을 진흥시키는 데에 봉사한다. ... 권위주의적이고 기술지배적인 시류의 위험 속에서 민주주의적 참여 절차가 구조적인 위기를 맞고 그 원리들과 영감을 주는 가치들이 불신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대화를 실천하는 것, 그리고 평화와 정의를 건설하는 공통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일들이다.”⁴⁶⁾

공동합의적 교회는 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어떻게 각자 제 몫을 하면서 함께 가야하는지,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몫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현대사회 안에서 누룩이 될 수 있다.

“민족들 사이에서 상호 의존성을 의식하게 되면서, 세상을 공동의 집으로 생각하게 되는 오늘날, 교회는 교회를 특징짓는 보편성과 교회 자신의 표현인 공동합의성, 이 두가지야말로, 다양성 안에서 일치, 그리고 자유 안에서 친교를 촉진하는 누룩임을 드러내도록 부름 받고 있다.”⁴⁷⁾♣

46)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19항.

47)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18항.

논평

최현순 박사의 “공동합의성: 저마다 제 길에서, 그러나 함께 가는 길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한 신학적 성찰-” 에 대한 논평

수원가톨릭대학교 한민택 바오로 신부

서울평협 평신도사도직연구소가 주관하는 ‘누구를 위한 누구의 교회인가—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공동합의성’이라는 주제의 전문가가 아니지만, 수원교구 사제로서 교구청 복음화국에 근무하면서 수원교구 50주년(2013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며 교구민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다양한 회의에 참가하며, 또 현재 신학생 양성에 종사하고 기초신학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며, 나름의 문제의식과 고민을 나눌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가 제의를 수락하였다.

공동합의성(synodalitas)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즉위 이후 줄곧 주창해 온 ‘교회의 선교적, 사목적 쇄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18년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에서 이 주제에 관한 문헌을 출간하면서¹⁾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늘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의 최현순 교수는 교회론 분야의 전문가로,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의 교회론을 연구하고 한국교회 안에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평신도 신학자로, 본 주제를 다루기 위해 적합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먼저 발제문의 논증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토론을 위한 몇 가지 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발제문의 논증구조

“본 발표는 공동합의성의 개념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그 구체적 실현을 돕기 위한 것이다.”(10쪽, 이하 숫자는 본 자료집의 쪽 수를 말함.)

이 언급대로 발제문은 공동합의성의 개념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공동합의성에 대한 막연한 개념 정리나 설명이 아니라 공동합의성의 한국적 수용이라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 또한 제시하고 있다. 논자의 지

1)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박준양, 안소근, 최현순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향대로 본 발제문을 통해 공동합의성의 한국적 수용을 위한 현실적이며 발전적인 토론을 이어나가기 위해 먼저 발제문이 제기하는 문제와 그에 따르는 논자의 주장(해결책)을 바탕으로 논증구조를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다. 글의 논증구조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로부터 출발하여 토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1.1. 문제 제기

발제문에서 발견되는 기본적 문제의식은 ‘수용’과 관련되어 있다. 공동합의성에 대한 보편교회의 문헌이나 가르침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논자는 이 주제가 보편교회의 흐름과 현대인의 의식의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3) 그런데 이 주제가 ‘현대의 민주주의적이고 공동참여적인 삶의 방식’과 부합하는 동시에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한다. 공동합의성이 본래의 교회론적 의미와 다르게 ‘교회의 민주화’ 내지 ‘의회적 의사결정 방법’으로만 이해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2) 다른 한편 논자는 이 주제에 대한 열렬한 관심과 환영의 대응과는 별도로 불안 섞인 회의적 입장도 존재함을 목격한다. 공동합의성이 평신도나 사제의 의견 개진이 ‘결정의 권한’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자문’의 측면에 머물기에, 일종의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어 보이는 것이다. 아무리 다양하고 타당한 의견을 제시한들 결정권자의 최종 결정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의 소위 ‘냉소주의’를 양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발제문에는 공동합의성을 넘어서는 더 큰 차원에서의 문제의식도 발견된다. 논자는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공동합의성과 연결 지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 점이 앞으로의 토론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다음 아닌 ‘위기’로 표현되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복음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에게 이 개념은 분명 여러 가지 거대하고 복합적인 위기 속에 있는 현재, 그리고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의 교회 및 세상을 위하여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9)

여기서 언급되는 현재에 대한 위기의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교회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적 여정과도 관계가 있다. 이처럼 논자는 교회와 세상의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한 역사의 갈림길에서 교회의 공동합의성을 고려하고 있다. 4장의 제목인 ‘공동합의적 교회의 구체적 실현: 온 인류를 위한 교회의 실존’도 이 맥락에서 더 잘 이해된다.

1.2. 주장

논자는 공동합의성을 교회의 본질과 무관한 의회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으로만 이해하지 않으면서 불안 섞인 회의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수용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그 신학적 기반에 대해 비판적으로 숙고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불안을 극복하면서 공동합의적 교회를 한국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이해된 의미에서의 ‘수용’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연구와 식별, 그리고 구체적 실현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9-10)

최 교수는 나아가 공동합의성에 대한 신학적, 교의적 접근을 통해 공동합의성에 대한 논의를 현대 사회에서 요청되는 교회의 내적 쇄신과 선교적 쇄신이라는 보다 큰 맥락 안에 위치시킨다. 곧 교회의 본질에 대한 숙고를 통해 이해된 공동합의성이야말로 교회의 사목적, 선교적 쇄신의 열쇠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공동합의성이 ‘교회의 생활방식과 활동 방식’이라고 한다면, 공동합의적 원리에 따라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대화와 협력, 말씀과 성령의 경청, 빵의 나눔을 통한 친교와 나눔, 동등한 품위와 형제애, 상호 섬김, 타인을 위한 삶의 내어줌, 은사와 직무의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공통 책임성, 상호 존중, 환대, 관대함과 인내 등이다.

공동합의적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교회의 선교 사명의 쇄신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현대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와 한계를 극복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 백성 전체가 공통의 목표를 향해 가면서 공통의 활동에 분화된 방식으로 참여하고, 분화된 공통 책임을 지고 있다는 공동합의적 교회 개념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력있게 다가온다. 더욱이 공동합의성 개념은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동합의성 개념은 단순한 화합주의나 타협주의가 아니며 다수결주의 혹은 헤게모니싸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같은 진리의 말씀,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인류 구원의 도구라는 동일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29)

논자는 교회의 이러한 공동합의성 실존 방식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복음화의 주체로서의 평신도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한다. 평신도야말로 교회의 내부적 상황뿐 아니라 한국사회 내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최전선에서 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이다.(23)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화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영혼’이 되도록 부름받은 평신도들은 시대의 징표를 읽고 해석하고 식별하고 또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23)

이로써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해 특별히 평신도의 각성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1.3. 논증과정

최 교수는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의 전망에서 공동합의성 개념을 분석한다. 전체 구성을 보면 먼저 공동합의성의 기원을 다루고(1장) 그 구성요소를 세 가지 곧 말씀과 성령과 성찬례로 제시한 다음(2장), 공동합의성의 실천 원리를 제시하고(3장) 그 실현 조건으로 제도적 차원의 구비 필요성을 제시한다.(4장)

전체 논증 방식을 볼 때 공동합의성이 의회 민주주의의 의사결정방식으로 잘못 받아들여지지 않기 위한 교회적 이해의 신학적 근거를 매 단계마다 제시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논증의 핵심에는 공동합의성이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생활양식과 활동 방식'인지 -이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말해 공동합의성에 관한 전체 논증을 이끌어가는 축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²⁾

먼저 1장 '교회의 삼위일체론적 기원'에서 교회를 하느님의 교회, 메시아적 백성으로 정의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하느님의 구원이 모든 시대와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 안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표징이요 도구,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사'로 세워졌음"(10)을 강조한다. 먼저 메시아적 백성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느님의 나라이며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존재함을, 이어서 교회의 실존방식이 하느님의 구원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나아가 하느님의 구원방식에서 하느님께서 인간과 관계 맺는 방식인 '대화와 협력'이야말로 교회의 실존방식임을 밝힌다(11-12). 곧 공동합의적 삶의 방식을 교회의 삼위일체적 기원에서부터 찾는 동시에, 공동합의성 개념을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사명인 구원의 전망 안에 위치시킨다.

2장 '공동합의적 교회의 구성적 요소'에서도 말씀을 경청하고 성령의 인도에 맡겨드리며 성찬의 희생제사 거행을 통해 서로 빵을 나누고 일치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여타의 민주주의적 제도와 차별화되도록 하는 구성요소라고 밝히는데, 이 요소들 역시 교회의 존재 방식인 동시에 고유의 사명인 구원의 실현 방식에 해당한다.

3장은 공동합의적 교회 실존의 원리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성경에 나타난 공동합의적 교회의 모델-모세의 예와 예루살렘 사도회의-을 간략히 언급한 후 공동합의적 교회가 세례를 통해 부여받은 하느님 자녀로서의 같은 품위에 의해,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놓는 제자됨의 실존방식에 의해, 공통된 교회 사명인 인류 성화와 구원을 위한 은사와 직무의 다양성에 의해 실현됨을 밝힌다.

“다양한 은사들과 다양한 직분들은 오직 하나의 목적, 곧 공동선과 인류 구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18)

4장 '공동합의적 교회의 구체적 실현: 온 인류를 위한 교회의 실존'에서는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그 실현을 위한 '매트릭스'로서의 마음가짐을 다루는

2) 이는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의 문헌의 제목이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인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데, 이 역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의 핵심인 인류 구원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느님 백성 전체, 그 모든 지체들이 공통의 사명, 곧 충만한 거룩함의 도달과 인류구원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모든 지체들의 협력은 당연하다.”(22)

“공의회 이후 모든 신자들이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한다는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 평의회들이 많이 설립되었는데, [...]”.(25)

이처럼 최 교수는 구원론적 전망에서 공동합의성의 신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4. 평가

최 교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기에 앞서 공동합의성 개념을 신학적, 교의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실현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흐름 안에서 공동합의성 개념을 반기면서도 그릇된 수용을 경계하며 비판적 시각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황청 국제신학원이 반포한 문헌보다 더 발전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발제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이후 권고 『복음의 기쁨』을 필두로 줄곧 주창하는 ‘사목적, 선교적 쇄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교회의 삶과 사명의 측면에서 공동합의성을 위치시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민주적 의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합의성이 한국교회의 교회의 존재방식이요 활동방식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의 내적 쇄신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칫 공동합의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본질에서 벗어나 의사결정방식에만 치중할 수 있는 오류로부터 벗어나도록 균형 잡힌 시야를 제시해주고 있다. 교황청 신학위원회의 문헌과 본 발제문에서 공동합의성을 공통적으로 교회의 존재방식이요 생활양식으로 규정하지만, 그 근본적 의도는 공동합의성을 실현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실현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동합의적 생활양식과 존재 방식을 구체화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또한 보편교회의 문헌이나 지침 혹은 흐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자신의 삶과 교의 해석에서 주체적 역할을 하며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점은 특별히 논자가 ‘지역교회’ 안에서 구체화되는 보편교회를 언급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22).

1.5. 남겨진 물음

발제문은 주로 공동합의성의 개념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인간 삶에서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개념이 아닌 현실 속에 살아간다. 특별히 현대 한국사회 안에서 교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발제문에서 교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간간히 비치지만, 명확히 신학적으로 문제화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 교수가 고려하는 문제는 복잡한 사안으로 보인다. 교회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가 구원을 선포해야 할 인류의 문제가 함께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복음화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에게 이 개념은 분명 여러 가지 거대하고 복합적인 위기 속에 있는 현재, 그리고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의 교회 및 세상을 위하여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9)

“교회 내적인 상황에 대한 이미 잘 알려진 희망적이지 않은 통계치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사회가 처한 정치적 및 경제적 복잡한 상황, 청년들이 겪는 수많은 암울한 상황들, 노인들, 실업, 결혼, 가정, 다문화 가정, 등등 이루 헤아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22)

논자는 이러한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규정했는데, 어떤 위기를 말하는 것인가? 논자가 말하듯 우리 편에서의 본격적인 연구와 식별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류가 처한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불투명한 미래를 신앙은 어떻게 밝혀줄 것인가? 이는 공동합의적 교회 창출 이전에 먼저 던져져야 할 물음들이다. 동시에 공동합의성이 가장 먼저 구현되어야 할 토론의 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합의성은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식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 아니라 교회의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논자는 자신이 던진 물음에 절반의 답만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합의성 개념의 신학적 이해와 구체적 실현을 위한 몇몇 조건에 대해 숙고하지만, 실제로 수용주체인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고, 기존 한국교회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공동합의성이라는 개념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걸림돌적 요소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한국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 수용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문제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기에, 이상주의적으로 머물 위험이 있다. 이는 오늘 발제 이후 이어질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의 고유한 역사가 있고 한국인의 정서에 따른 한국교회만의 특수성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고착화된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의사 결정방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공동합의적 교회로의 변화는 여전히 소원한 희망으로 보인다. 공동합의성 정신을 한국교회 안에서 실현하고자 할 때 매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 문제는 공동합의성의 실현에 있어서 신학적, 사목적 식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실제 교구 사목평의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신앙적 식별력을 통하기보다는 개인의 체험에 입각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일반 회사의 회의에 참석하며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인지, 어떤 의견이 요구되는지 등에 대해 방향을 잡지 못하여 의견이나 불만만 나열하다 명확한 진단이나 해결책에 이르지 못하여 흐지부지되

는 경우가 많다. 각 위원의 신앙적 식별력 함양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종류의 식별이 요구되는지 명확하지 않기에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곧 식별 행위 자체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어야 한다. 신학적으로 사목적으로 식별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의회 민주주의의 결정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의 진단과 어떤 방식의 식별이며, 그 원리는 어떤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단편적인 답을 발제문에서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³⁾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관건은 교회의 삶과 사명을 위한 식별을 위한 그리스도교적 해석학의 근본 원리에 관한 것일 것이다.

2. 토론을 위한 주제

이와 같은 흐름 안에서 보다 창의적인 토론을 위한 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논자는 공동합의성을 교회론적 전망 안에 위치시키며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한국교회 안에서 공동합의서에 대해 논의할 때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2.1. 식별하는 교회

먼저 논자가 제시하는 전망을 이어 받아, 여기서는 공동합의성을 보다 큰 전망에 위치시키기 위해 기초신학, 해석학의 전망에서 식별의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고자 한다. 최 교수의 발제문과 국제신학위원회의 문헌 모두 식별의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식별에 대한 신학적 해석학적 숙고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된다.

왜 함께 토론하고 식별해야 하는가? 왜 교회는 역사의 매 순간 이러한 식별 행위를 통해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해야 하는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미리 제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진리가 가진 특수성 곧 구체적인 상황과 현실 속에 육화되고 현실화되는 진리이며 고유한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회의 본질 자체가 그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길을 끊임없이 모색해 나아가며 주어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고 현실화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잠시 머무르는 것은 매우 유익해 보인다. 역사적 여정의 한 순간 이제 막 태어난 교회는 매우 난해한 문제 앞에 서게 된다. 그 문제는 스승으로부터의 규정도 없었던 실천적인 규율 측면의 문제였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교의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루살렘 사도회

3) “그렇다면 지역교회가 구원의 성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삶의 자리를 파악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의 징표’를 읽고 해석하고 식별하는 일로, 그에 따라 복음 선포를 위한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로 연결된다. 교회 내적인 상황에 대한 이미 잘 알려진 희망적이지 않은 통계치는 물론이거니와, 한국 사회가 처한 정치적 및 경제적 복잡한 상황, 청년들이 겪는 수 많은 암울한 상황들, 노인들, 실업, 결혼, 가정, 다문화 가정,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다. 복음선포는 선포 대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대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에 따른 선포 방식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하며,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선교방식은 더 이상 현대에 적합하지 않다.”(14)

의는 예수님의 구원 업적 선포를 핵심 사명으로 하는 교회 자신의 모습을 역사 안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작업은 초대교회의 숙제인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다. 필요했던 식별의 본질은 교의적인 동시에 실천적이었다. 곧 믿는 바와 실천 양식 사이의 조화, 그를 통한 일관성 있는 삶의 방식 창출이 관건이었다.

문헌에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대해 언급한 내용 중 의미심장한 부분이 목격된다.

“여기에서는 사도 교회가 그 여정의 결정적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 현존의 빛을 통하여 선교의 관점에서 자신의 소명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합의의 사건이 이루어짐을 알아볼 수 있다.”(20항)

“그의 [야고보 사도의] 담화는 하느님의 계획에 견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구원 역사의 점진적 전개를 따라 함께하고자 하는 열린 교회의 사명에 대한 전망을 보여 준다.”(20항)

문헌은 여기서 교회의 역사적 특수성에 관해 진술하고 있다. 교회는 역사의 여정 안에서 자신의 존재 방식과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상황 안에서 식별해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언제나처럼 여기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선포의 내용과 실천에 관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신앙 내용에 대한 것이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어떤 것이며, 그리스도의 실존과 가르침은 어떤 답을 주는가? 변화된 상황 안에서 신앙 내용에 대한 재해석이 새로운 실천 양식을 창출하도록 한다. 최 교수가 발제문에서 말씀의 우선성과 계시 진리에 대한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26-27). 신앙 내용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공동합의적 교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 공동합의적 식별의 과정에서 출발점이고 원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동합의성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선교 사명을 살기 위해 모색하는 맥락 안에서 발동된다. 그것은 사실 최 박사가 지적하듯 ‘삶의 스타일’이어야 하다(27-28). 시노드와 같은 큰 교회적 모임만이 아니라 본당이 나 소공동체, 개인의 일상적 삶 안에서 복음을 사는 삶의 스타일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한국교회에서 공동합의성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공동합의성을 한국적으로 실현시킬 교의적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초점을 현대 한국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실현시키는 방식에 집중시켜야 하며, 이는 한국사회의 고유한 맥락 안에서 신앙 내용에 대한 재해석이 매우 시급하게 요청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2.2. 다시 하느님 나라로

기초신학을 연구하는 논평자의 입장에서 위기의 본질은 교회의 신앙 진술과 구체적 삶의 실천이 현대 사회의 큰 흐름과 무관하게 혹은 역행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인간의 자유와 인류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보이며, 비현실적이고 막연한 추상적인 가르

침에, 형식적인 전례 행위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신앙 체험의 문제이며, 신앙 내용에 대한 재해석과 실천의 문제다. 공동합의성이 가장 먼저 발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현대 한국사회 안에서 가톨릭 신앙이, 그리스도 신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기초신학의 전망에서 볼 때 공동합의성은 신앙의 본질과 부합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신앙 진리의 역사성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계시가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고 역사적 증언에 의해 전해졌기에 해석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계시 자체가 식별의 대상이기에 새로운 식별 행위를 필요로 한다. 계시는 그러한 식별 행위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신앙도 교회도 역사 안에서 구체화된다. 교회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존재와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식별해나가야 한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공동합의성을 수용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숙고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다. 그것은 공동합의성의 실현을 통해서만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 그리고 공동합의적 교회의 발전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공동합의성이 관념적인 이상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희망의 표지로 자리매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사도행전이 전하는 사도들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우리의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이야기는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복음선포가 당신 영의 활동을 통해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공동합의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사도시대의 생활의 원리를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합의를 위한 제도적 구비에 선결되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 개개인이 성령을 통해 영적 활기를 갖는 것이요,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이다. 그것은 사도들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들의 체험은 오늘에도 열려있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가라, 갈릴래아로!(마태 28,10 참조)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만나는 제자 체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체험, 성령 안에 한 형제자매를 이루는 형제애 체험, 하느님이 지금 여기서 죄와 악의 속박에서 벗어나도록 당신 사랑과 자비로 지배하시는 하느님의 나라 체험을 지금 여기서 행하는 것이다. 결국 하느님 나라로 다시 집중되어야 한다. 그 나라가 어떤 실재이며 지금 여기서 어떻게 현존하는지 현대인에게 납득할만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삶으로 증언해야 한다. 이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언제나처럼 하느님 나라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삶을 새롭게 개편하는 것이다. 전례, 말씀, 봉사, 애덕, 제도와 조직 등을 포함하여. 교회의 말씀 선포, 성찬례 거행, 성령 쇄신 운동 등은 공동합의성의 구성요소로 제시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그 모든 것은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 교회의 삶이 그 나라가 현실화되도록 하는 자리여야 한다. 하느님 나라 실현의 장으로서의 교회 삶(말씀 선포, 성사 집전, 봉사와 애덕 활동 등)이 바로 신자들의 양육의 장소이며 식별의 자리다. 특별히 삶의 자리에서의 식별 행위의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삶 자체가 교육과

양성의 장, 식별력 함양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기초신학적 측면에서 공동합의성의 무게 중심은 합의성 자체라기보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 사이의 일관성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계시의 전달로서의 교회의 삶을 하느님 나라 중심으로 돌리는 것, 공동합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초신학의 관점에서 계시는 식별의 문제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진리의 육화와 관련된다. 식별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능동적인 교회, 자발적인 교회, 역사적인 교회로 거듭 남을 의미한다. 수동적인 교회, 식별하지 않는 교회는 비역사적인 교회요 성령의 인도와는 거리가 먼 교회다. 삶과 사명 안에서 스스로 해석하고 식별하는 공동체로 새로 나아 한다. 공동합의성은 전통의 전승 원리에 해당한다. 그것은 신앙의 내용을 우리 것으로 하는 작업이다. 내용에서 출발하는 재해석 없이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재해석 없이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원칙만을 반복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다. 공동합의성은 외부적 요소가 아니라 교회의 내적 삶의 원리다. 공동합의성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한국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역사적 현실 안에 육화하는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부족한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상의 숙고에 담긴 물음과 지적에 대한 논자의 의견을 청해 듣고자 한다. 다시 한 번 좋은 논문을 써 주신 최현순 교수님께, 그리고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면서 본인을 논평자로 불러주신 주최측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패널 논평1

본당 공동합의성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

이병욱 요한 금구

(대방동본당, 평신도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 제기

좋은 발표를 해주신 최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당 신자들 사이에서는 “교회가 하는 일은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고 농담들 합니다. 사목위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¹⁾로 상처받고 냉담하거나 교회 떠난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당 내 공동합의성 문제의 해결은 교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2. 본당 내 공동합의성의 현황과 문제점

1) 사목평의회 설립(존치 여부, 구성원의 다양성 정도, 사목위원 선발과정의 문제)

* 본당내 사목평의회를 설립, 운영중인 본당의 수가 오히려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임.
(예시: 한 지구의 경우 13개 본당중 사목협의회가 없는 본당이 2-3개 있음.)

* 본당내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평신도 구성이 다양한 신분, 문화, 연령층 등을 고려하여 위원이 구성된 본당 사목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음. (예컨대 15지구의 경우 62만 지역주민중 외국인 비중이 18%에 달하지만, 사목평의회에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는 본당은 하나도 없음. 사목협의회 구성도 많은 본당의 경우 50-60대가 주로 참여하고 있음.)

* 사목협의회 구성시 사제나 사목회 일부 간부의 친소관계나 특정단체, 특정 구역 신자나 말을 잘 듣는 신자들만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음.

* 본당 내 구성원에 대한 충분한 파악없이 전임 사제나 일부 사목위원의 의견만 반영하여 사목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음.

2) 사목평의회 위원의 선발방법

1) 본당내 단체의 일방적인 활동중단 조치나 해체, 단체장이나 사목위원 등의 중도 교체, 구성원간 갈등과 소외, 본당 활동과 관련한 일방적인 의사결정(예: 예산지원의 중단, 회의실 사용 규제, 각종 시설 이용시간의 규제 등)

- * 새로 부임해 오는 사목자가 본당의 사정이나 인적구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임 사제때 사목위원들을 일단 협의회 위원으로 재임명하여 일정기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음.
- * 사제에 따라서는 사목협의회를 해체하고, 일정기간 사목협의회 없이 운영하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사목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함.
- * 투표에 의해서 사목협의회나 구역반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서는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
- * 사목위원들의 선임에 앞서 인력풀 정보의 지득방법이나 인력 DB의 구축도 중요해 보임.
- * 본당 나름대로 사목협의회 위원 선발 기준을 마련해 두면 좋을 것으로 보임. 예컨대,
 - 말씀이나 미사 전례에 적극 참여하는 신자(적어도 주 1-2회 평일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
 - 교무금을 책정하고 납부하는 신자,
 - 본당내 신심단체 등에 참여하는 신자
 - 본당내 평판도 좋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신자 등등의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위원을 선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사목협의회 운영

- (1) 사목협의회 역할과 임무의 충실성 : 매우 실망적인 수준임
 - 복음 선포대상에 대한 파악 및 이해
 - 대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에 따른 선포방식의 연구
 - 적합한 해결책 강구
- (2) 사목회의 개최 주기 : 주 1회, 월 2회, 월 1회, 필요시 개최
- (3) 사목협의회 구성원 수 : 8인 내외가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15인을 넘는 본당 협의회가 많아 구성원간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어려운 환경임.
- (4) 회의진행방식: 본당사제 또는 사목평의회 의장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 (5) 사목협의회 논의 결과의 수용 정도
 - 사목자의 자문에 그치는 경우 사목회의가 위축되고 활발한 의견 개진이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 자문을 넘어 본당내 의결사항으로 수용되는 경우 사목위원의 참여도가 높아짐
 - 사목협의회 논의사항을 본당 방침으로 수용기로 했으나 이에 반하는 본당의 정책결정이 빈발하는 경우 사목회 활동을 포기하거나 냉담교우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음.

3. 공동합의성의 실현 환경조성과 마음가짐에 대한 소견

최교수 발표 내용처럼, 공동합의성 교회는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에 목자와 신자가 하나되어 귀기울이고 함께 그것을 식별한 후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저마다 제 몫을 하되 함께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1) 본당내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해서는 (1) 상호 경청의 태도를 갖추고 (2) 하느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함. 성령, 말씀, 성찬례는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의 뿌리이자 기둥임. 이는 평의회 위원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동합의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지속가능성 관점에서는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한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동합의성 교육과 경청과 대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 보임.

감사합니다.♣

패널 논평2

공동합의성: 저마다 제 길에서, 그러나 함께 가는 길 -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한 신학적 성찰-

하유경 아나스타시아
(상도동본당, CLC 공동체 회원)

이 발표의 목적은 현재 가톨릭교회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공동합의성(synodalitas)의 개념에 대한 신학적 이해와 그 구체적 실현을 돕기 위한 것”이다. 공동합의성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5년 ‘세계주교시노드 설립 50주년 기념 담화’에서 언급함으로써 전 세계 가톨릭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에 선출된 이후 『복음의 기쁨』을 필두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지향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현대화와 쇄신’을 복기하며 광범위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성직자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지역교회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동합의성은 보편교회와 지역교회 간의 공동합의성, 또는 지역교회 안에서의 공동합의성을 이끌어내어, 교회를 쇄신하고자 하는 방향 안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읽을 수 있다. 발제자는 “공동합의성이 거대하고 복합적인 위기 속에 있는 현재, 그리고 불투명해 보이는 미래의 교회 및 세상을 위하여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공동합의성을 주제로 삼는 이유를 밝힌다. 성경의 예와 교회의 역사 안에서 공동합의성에 관한 많은 신학적 근거들은 이미 공동합의적 교회가 이어져 왔음을 확인해준다. 또 저자의 의견대로 공동합의성은 이 시대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공동합의성의 의미와 중요성, 그 효용성에 대해서 저자의 견해에 깊게 동의한다.

1. “공동합의성이 교회의 민주화 또는 의회 개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저자는 공동합의성이 결코 제도적으로 ‘교회의 민주화’나 일종의 ‘의회’ 개념으로 이해하거나 단지 의사결정 방법으로만 이해한다면 공동합의성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 말한다. 즉 단순히 “화합주의나 타협주의가 아니며 다수결이나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할 사항이 있다. 첫째, 의사결정 방법이 다수결에 의한 소위 ‘민주적’인 절차와 같지 않다는 점, 둘째, 과정이 화합주의나 타협이 아니라는 점이다. 교회는 공동합의적 교회에 대해 이미 교회현장에서부터 그 전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현대 서구교회에서는 사목평의회를 구성하였다. 민주주의에 익숙한 현대인들

에게 공동합의적 교회 개념은 호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의회 이후 모든 신자가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한다는 원리를 표현하기 위해 많이 설립된 평의회들은 처음에는 잘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를 첫째, 평의회 위원으로 선출된 이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둘째, 사목평의회가 의무적인 것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셋째 참여의 의지가 이전보다 약해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유로 평의회(Concilium)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문’을 의미하며 한계를 지닌다는 예를 다음과 같이 든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제안을 할 수는 있으나 그 유효성은 평의회 주재자가 판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평의회 주재자가 가진 권리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목자들의 입장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목자들의 태도 때문에 평의회에 참여한 평신도들의 참여 의지가 약화했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평신도들의 한 표는 제안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 반면 민주주의에서 모든 이들은 동일한 효력의 ‘한 표’를 행사한다.

이러한 차이는 교회가 직무에 따른 각 지체의 권한과 책임이 동일하지 않다는 가르침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성품성사를 받은 직무자의 일은 신자들의 봉사를 ‘종합하는 직무’, ‘조화의 직무’, ‘협력과 형제애의 직무’, ‘하느님 백성의 봉사를 조직 혹은 주재하는 직무’이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그러한 성품 직무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¹⁾ 그러면 서도 직무에 따른 ‘분화된 공통 책임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평의회에서 평신도들은 공통의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가? 교회의 선익에 필요한 일이라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럴 의무까지도 지닌다.”(교회헌장 37항)라고 하는데 자문의 역할만이 권리와 의무의 영역이라면 능동성과 자율성을 발휘하기에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서구에서 일어난 평의회 참여 약화는 교회의 민주주의로 오해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제도가 지닌 한계 때문이지 않을까 추측한다. 그것은 오늘날 본당사목회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교구 사목평의회에 평신도의 참여가 광범위하고도 확고한 방법으로 적용된다면 이 참여는 협의의 수단과 협력의 원칙을 확장할 수 있고 의사결정의 방법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교황의 언급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 권한이 있어야 그에 대한 책임도 있다. 앞으로 결정에 관한 권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야 하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공동합의적 교회 개념에서 타협과 화합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장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쪽에서 결정권을 가지는데 다른

1) 2019년 1월, 미국 코네티컷주 페어필드 교구 주교는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본당 여성 평신도이며 신학박사인 Eleanor Saucers를 본당 최고책임자(parish Life coordinator)로 임명하였다. 그는 2018년 전임자 사제가 급작스럽게 선종한 뒤 본당의 여러 행정을 책임져왔다. 그는 행정책임자로 임명된 뒤, 다른 본당 사제나 부제와 마찬가지로 본당 사목 전망을 세우고 키우며 본당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사제단은 미사 집전과 다른 사목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교회 안에서 여성사무장은 많이 있으나 이런 최고 결정권을 가진 여성 평신도는 처음으로 이는 여성 평신도 리더들의 도약을 의미한다. <https://www.apnews.com/4e89fefe16e04f8b9e5ed859ea1ba3ab>

편에서 다른 주장을 할 때 그것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사제 평의회 구성은 의무사항이지만 사목평의회가 권고 사항으로 구성되지 않은 교구가 많은 상황에서 평신도가 타협하거나 화합할 사안조차 없다. 1993년 로마 시노드에서 본당 사목평의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고 하는데²⁾ 이미 25년이나 지난 실정이다.³⁾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타협이나 화합하지 않으면 오히려 살아가기 힘든 실정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

2. 공동합의성은 교회의 생활방식과 활동 방식을 가리킨다. 발제자는 제도 마련과 함께 공동합의성의 마음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동합의적 교회 개념을 교회의 민주화나 의회 개념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상호경청의 태도, 상호존중, 환대의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유기적 역동성이 살아있기 위해 대화가 필수적이다. 아마도 서구사회에서 평의회가 약화된 이유에 이 요인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인이 서로에게 갖추어야 할 마땅한 태도와 덕목일 것이다. 공동합의적 교회에서 보다 더 이러한 태도와 대화의 방식이 반드시 드러나야 할 부분은 사목적 식별과 결정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식별과 결정을 하는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인은 국제 평신도공동체인 CLC(Christian Life Community)의 회원이다. CLC는 세계 70여 개국에 30만 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나시안 영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나시안 영성은 식별의 영성이라고 일컬어진다. 즉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성령 안에서 식별하는 것을 첫째로 둔다.

CLC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세상 속의 교회를 지향한다. 세계공동체는 5년에 한번 총회를 개최하며 각국에서 파견된 대표자들이 공동식별을 통해 공동체의 전망을 결정한다. 이 때는 기도와 나눔, 경청, 대화를 통해 공동식별의 과정을 가진다. 경청은 다른 사람의 말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나눔은 진실한 개방을 전제로 한다.

2)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박준양, 안소근, 최현순 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p.77.

3) 교황 바오로 6세는 자의교서를 통하여 사목회의에 관한 준칙을 발표하였고, 교황청 성직자성성은 1973년 <사목평의회에 관한 회람장>을 발표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은 교회법에 수렴되어 있다. 교회법(511-514조)은 "교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느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로 조직"되고 '교구장이 의장'이며 '교구장의 인준을 받을 경우에 그 의결사항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사목회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사목회의는 교구단위 뿐만 아니라 본당단위, 지구단위로도 설치될 수 있으며 지역의 주교회의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기관으로서 관구단위, 전국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인 1984년 '전국사목회의'(pastoral council in Korea)를 개최하였다.

가톨릭사전, 사목회의 참조.
http://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1394&keyword=&gubun=01

지역공동체인 각 국가공동체 역시 이와 동일한 공동식별의 과정을 거쳐 현재와 미래의 사안을 결정한다. 이러한 모습은 ‘공동합의적 교회’의 한 모델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첫째, 모두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결정권이 있지 않다. 또 식별의 과정 역시 민주주의의 다수결과는 다르다. 그러나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둘째, 함께 책임을 나눈다. 함께 식별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진다. 이는 책임을 1/N로 나눈다는 뜻은 아니다. 각자 이 식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저 마다의 몫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식별의 실행은 훨씬 강력하다. 셋째, 끊임없는 교육과 영성 훈련이 바탕이 된다. 세상과 교회의 현실에 대한 교회의 문서를 읽고 공부하며 신학과 영성 강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복음 묵상과 지속적인 영성 나눔, 피정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도록 한다.

공동합의적 식별은 “문화를 복음화하는 새로운 과정을 돕기 위한” 공통된 선택에 영감을 불어넣어 격려할 수 있다.⁴⁾ 문화를 복음화하는 직접적인 장애 있는 이들이 바로 평신도이며 이들이 공동식별의 장애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선익에 분명히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의 자문의 역할에 그친 평의회는 공동합의적 식별의 커다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3. 근본적으로 모든 지체들은 같은 하느님의 자녀라는 동등성이라는 발판 위에 있다.

이는 그리스도 자신의 명령이다. 어떤 우월주의나 지배, 가부장주의도 허락되지 않는다. 서로 상호 섬김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여성 신자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사목회장을 본 적이 없다. 여성은 항상 총구역장이라는 역할만 있을 뿐이다. 사목회의의 구성 역시 남성 중심이다. 본당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사목회의 대부분의 사안은 본당 사제 결정 권한 아래 있다.

현실과 교회의 권고나 가르침은 너무나 간극이 크다. 신학적인 논의가 사목에 반영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p.78.

패널 논평3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의 실천

손정명 수녀(선한목자예수 수녀회)

최현순 교수님께서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문헌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결론 부분에서 ‘무엇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가? 무엇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하는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의 답이 다른 여타의 인간 사회와 하느님 백성 사이를 구분 짓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공동합의성 문헌은 공동합의성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일치 노력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 일치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갈라진 그리스도인들과의 일치입니다. 여기서는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일치와 관련된 본당 상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본당에는 공동합의성의 실천을 위한 사목협의회가 아주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상황은 공동합의성 문헌에서 기대하는 것에 잘 맞는다고 자신 할 수는 없습니다. 본당의 각 단체에는 많은 평신도 봉사자들이 존재하며 공동합의적 삶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사제와 평신도 또는 평신도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곳도 종종 나타납니다. 다양한 이유 가운데 흔히 성직자 중심주의나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대화 부족, 그리고 평신도들 간의 대화 부족 및 인간적 미성숙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목적 지향에 따라 본당이 운영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사제들의 착한 목자 영성이 심화되면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사제를 단순히 성사를 집전하는 기능인으로서 이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시면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목자가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1990년도에 이태리 북부 모데나에서 목자와 양 떼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초원에서 수백 마리의 양들이 풀을 맛있게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뭐라고 하니 양들이 귀를 모두 쫓긋 세우며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신기해하니 목자는 저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양몰이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쿵쿵 치라고 해서 그대로 하니 양들의 귀가 역시 쫓긋 세워지면서 모두 저를 향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겁이 났지만 계속 서 있었는데 저에게 가까이 오던 양들이 자기들 목자가 아님을

알고 즉시 모두 등을 돌리고 저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기 싫어서 동행했던 수녀님에게 사진을 빨리 찍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을 언뜻 보면 양들 중앙에 있는 목자처럼 제가 보이지만 실제로 그 양들은 저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사진 찍는 순간 만이라도 등을 안 돌렸으면 고마웠을 텐데 하구요. 이어서 목자의 양몰이 사투리를 어설피게 흉내 내니까 괴상한 소리에 양들의 귀가 모두 초긴장 상태로 듣다가 진짜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뒤에는 다시 풀을 뜯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신호를 보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모든 양이 즉시 귀를 쫓긋 세워 목자의 소리를 확인한 뒤에 무리를 지어 따라갔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떼를 지어 움직이는 그 장면이야말로 하나의 예술 중의 예술이었고 비디오로 찍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 저에게는 사진기만 있었습니다. 목자는 2개의 막대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짧고 가느다란 막대기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양 떼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긴 지팡이는 양들이 이동할 때에 목자가 땅을 치면서 인도를 하면 양들은 그 진동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들은 늘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기에 비록 눈으로 목자의 존재를 확인하지는 못해도 지팡이의 울리는 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제가 본 여러 그룹의 양들은 언제나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늘 배가 고플까 봅니다. 양들이 이동하면서 지나간 도로변에 있는 화초들은 거의 무참하게 다 뜯겨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와 양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고 목자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풀밭과 물을 찾아 양들을 인도하고 그것으로 양육하며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름의 고유한 역할수행 속에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착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목자였고 라헬 역시 소녀 시절에 이미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목자의 세계에서는 남녀노소가 모두 목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본당사제는 예수님의 양이며 또한 목자이고, 본당의 사목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봉사자들 역시 착한 목자 예수님의 양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거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동료 양들과 함께 걸어가는 '작은 목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양 무리의 특징은 목자와의 깊은 친교 속에 목자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었고 목자의 지시에 아주 민첩하게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당의 성직자들과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착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친교의 삶을 살아 자신의 영적 생활의 진보를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본당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을 포함해서 중요한 책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이들 가운데 어느 날부터 아주 성당과 담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바라보며 본당에서 봉사합니까? 혹시 본당사제들 또는 다른 곳에 시선이 집중되어 하느님을 멀리 보내드린 것은 아닙

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동기와 자신의 영적 생활을 짚어보는 기회를 가끔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느님 중심인지 기도의 삶 없이 인간적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 중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성찰 부분입니다.

본당사제들이나 봉사자들은 본당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지만 사목적 열정이 거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영성 생활을 통해 하느님 체험이 좀 더 심화할수록 그분의 양들을 돌보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사목적 열정이 더욱 더 강하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도구로 쓰일 다양한 측면의 협력자들의 중요성을 느끼며 함께 하려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기에는 상호 존중의 태도와 서로에게 경청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며 이렇게 대화하는 훈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대화법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므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공동합의성 문헌’은 사목적 회심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나친 성직주의와 성직자들의 세속화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고, 평신도를 성직자처럼 만들지 않으면서 복음화를 위한 상호협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동합의성의 원형적 모습을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라고 합니다. 최 교수님은 공동합의성이 오직 같은 진리의 말씀,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인류구원을 위한 도구로써 임하기 때문에 화합주의나 타협주의 또는 다수결주의와는 다르다고 강조하십니다. 또한 성품 성사를 받은 직무자들의 일은 신자들의 봉사를 ‘종합하고 조직, 주재하는 직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회현장에서는 교계제도가 고유의 권위와 권리를 받았지만, 이 권위는 백성 ‘위’가 아니라 백성 ‘안에’ 세워졌음이 나타납니다.(교회현장 18항??)

교계제도를 보통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공동합의적 교회의 모습이 ‘역삼각형’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삼각형의 정점에 권위를 행사하는 사도단을 두셨고 그 안에서 베드로 사도는 ‘반석이며 믿음 안에서 형제들의 힘을 ‘복돋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미지는 역삼각형처럼, 그 정점이 밑변의 아래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은 ‘봉사자(ministry)’라고 불립니다. 모든 이 가운데 가장 작은 이들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역삼각형은 사제들은 물론이고 본당의 각 단체 봉사자들에게도 해당하는 겸손한 태도의 이미지입니다.

사목자와 사목위원들 그리고 각 봉사단체의 공동 시선은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분의 양들이 필요로 하는 점에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향한 연민의 눈으로 시대의 징표를 인식하면서 물질적, 영적, 심리적,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여정의 동반자들의 노력이 있을 때 공동합의성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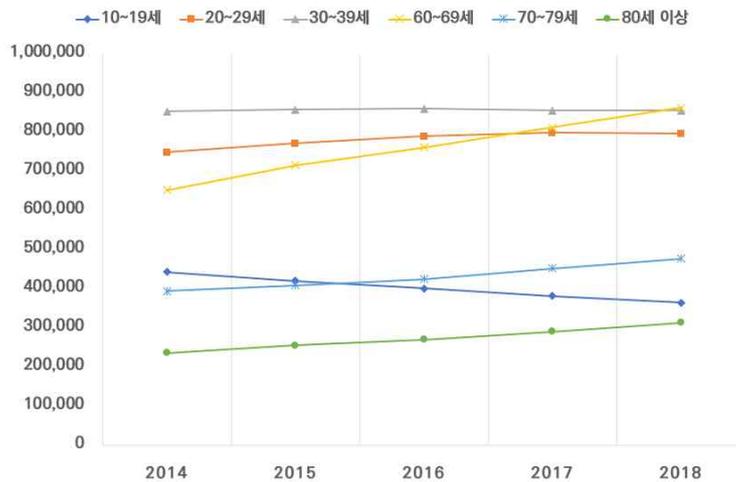
패널 논평 4

교회 내의 청년의 현실과 공동합의성

김세진(시몬, 살롬회 회원)

1. 나이 들어가는 한국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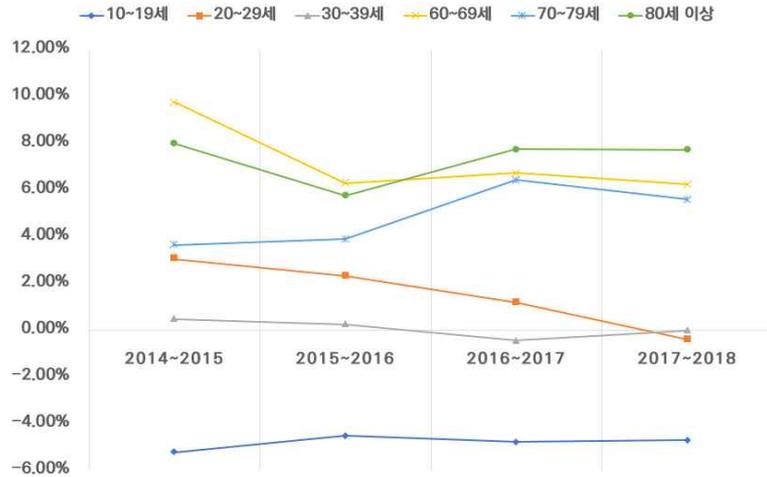
<표 1> 한국천주교회 세대별 신자 수 추이(2014~2018)
(단위: 명)



* 출처: 한국천주교회 통계연보(2014~2018)

한국천주교회의 고령화는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10대 청소년들의 신자 수는 매년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20대, 30대 청년도 2016년을 정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 대신 60세 이상의 노년층들은 빠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60대의 경우 신자 수로는 이미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0대와 30대를 넘어섰다. 이것을 <표 2>와 같이 증감률로 보자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표 2> 한국천주교회 세대별 신자 수 증감률 변동 추이
(단위: %)



* 출처: 한국천주교회 통계연보(2014~2018)

<표 2>에서 보듯이 10대부터 30대의 세대와 60대 이상의 세대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60대 이상의 세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율 역시 6~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와 반대로 10대부터 30대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인다. 10대는 2014년 이래로 증감률이 양수 값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수치 또한 -5%대를 유지하고 있다. 30대는 증감률 자체가 0% 자체에서 오가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20대로 2014~2015년에는 2% 증가율을 유지하던 신자 증감률이 꾸준히 하락하여, 2017~2018년에는 감소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교회'에 대하여 교회 구성원들의 반응은 그 이유를 출산을 저하로 인한 인구절벽의 도래, 청년들의 세속화 등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교회 내의 청년층의 감소에 관해서 설명하는 상당히 좋은 증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유들을 보자면 교회의 내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교회의 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찾는 '교회의 외적 요인' 만으로 과연 청년 신자 층의 감소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2.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청년이 없는 교회

교회는 청년층 감소에 대한 우려, 청년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목적으로 청년 사목을 대폭 강화하였다.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청년들에 대한 접근을 새롭게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년을 보는 시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느님의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에 대하여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은 신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교회가 일방적으로 청년들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각자의 프로그램 내에서 나눔 등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나눈다고 하지만, 그것은 소그룹에서의 사례일 뿐이고, 전체 프로그램에 반영된다거나 하는 것은 보기 어렵다. 당연히 소통이 없는 프로그램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제한적이거나 없을 수밖에 없다.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청년이 없는 기이한 상태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시시각각 변하는 청년들의 생각을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사회에서 2018년과 2019년의 청년들이 반발했던 이슈를 보면 대부분 ‘공정’ 그리고 ‘소통’이라는 핵심이다. 그만큼 지금의 청년세대들은 기성세대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의’나 ‘당위성’보다는 ‘공정’, ‘소통’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일말의 기대와는 다르게 교회 내부의 청년들과 교회 외부의 청년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교회 내부에 있는 청년들도 다음과 같은 인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며, 새로운 청년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도 기본적인 구조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해 답답함과 지루함 그리고 반발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청년들이 근간이 되어야 할 본당 생활 등 신앙생활 속에서도 소통 없는 구조들이 청년 사목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몇 해 전, ‘열정페이’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 개신교회 내에서 ‘신앙페이’, ‘헌신페이’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청년들의 노동력과 아이디어를 함부로 쓰고 그것을 신앙이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내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다. 많은 청년은 기꺼운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자 하지만 의견을 내기에는 매우 어렵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청년의 시각이나 의견이 반영은 차단된 경우가 많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어른’들의 의견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어른’이 사목자나 수도자인 경우라면 반발이 덜하지만, 그저 ‘연장자인 평신도’인 경우에는 부당한 간섭으로 받아들여져 많은 청년이 이에 반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교회를 위한 것이다.’고나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교회에서의 청년의 지위는 ‘미성숙해서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생각은 참신하고 힘은 넘치므로 일은 해주어야 하는 존재’라는 모순적인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 청년들을 보는 시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본당 생활에 청년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참여하더라도 급속하게 소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교회는 구성원 모두가 유기적으로 하나 된 몸’이고 ‘모든 신자의 교회’라는 기초에 굳건히 서 있는 공동합의성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3. 공동합의성과 청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주목은 전체의 신도들을 성별, 세대, 국적,

인종 등의 구분 없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데 큰 의미를 둔다. 이러한 ‘하느님의 백성’은 신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까지 확장되었다. 그야말로 교회의 울타리를 무너뜨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느님의 구원과 은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목자는 청년 사목에 있어서 ‘청년 신자’들을 위한 사목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목을 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소통의 방식에서도 교회의 틀 속에서 청년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교회가 청년의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하느님의 백성은 교회의 유기체로서 모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던 막막한 현실은 교회 내부에 공동합의성을 더욱 연구해야 하고 학습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공동합의성이라는 개념이 교회 밖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적이거나 민주주의에서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 다수결주의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교회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전체 공동체가 숙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기존의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모두가 의견을 내고 숙고하는 교회라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들이 공동합의성에 주목하는 것은 교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이나 교회운영의 민주주의적 참여보다는 소통이나 의견의 공정한 반영과 토론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청년과 청소년의 의견소통 창구가 나이 또는 재산과 같은 교회적 권위가 아닌 세속적 권위에 의해서 막혀있고 청년·청소년의 의견이 청년·청소년분과장이나 교육분과장이라는 윗세대에 의해서 대변된다면 아무리 교황님께서 공동합의성을 강조하시더라도 한국교회에서는 변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본당에서부터 교구까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본당 사목협의회 등지에 청년들이 청년대표로서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교구에서도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평의회’를 구성하여 청년 사목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언을 받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2018년 10월에 있었던 세계주교시노드와 같이 청년을 주제로 하고,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청년 시노드’ 역시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느님의 자녀 됨의 품위와 유기적인 공동책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성령의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청년에 대한 논의는 사목자들이 사목을 함에서도 충분한 도움을 주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신자의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신자들이 질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다. 주변 국가인 대만이나 일본의 교회들은 한국교회보다 작은 규모지만,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들이 많다. 청년 신자들이 직접 사목자인 주교를 찾아가 모임을 만들어서 역사공부모임을 만든다거나 봉사 모임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청년 신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그리고 사목자의 판단이 어우러지는

공동합의성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권위를 넘어서 청년을 한 교회의 지체로 인정하고 대우해 주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지금과 같은 청년층의 교회 이탈은 한층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패널 토론 및 종합 토론¹⁾

주원준(사회)²⁾: 여섯 분이 올라와 계신데요. 격려의 의미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패널 토론을 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 자체가 우리 교회 지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 또 발제와 토론이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로 모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지체를 각자 신분에 맞게 골고루 준비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주실 이병욱 요한 금구 형제님은 대방동본당 전 총회장이셨습니다. 본당사목회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유경 아나스타시아 자매님은 이나시오 영성을 다루는 평신도 공동체 CLC의 오래된 회원이면서, 현재 CLC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성과 평신도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이고, 세 번째 손정명 체칠리아 수녀님은 선한목자수녀회 소속이시며, 현재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 위원회' 위원입니다. 수도자의 입장에서 말씀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세진 시몬 형제님은 현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면서 의정부교구 미래세대연구자 모임인 샬롬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입장에서 말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이병욱 요한 금구 형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병욱(본당): 여러분 모두 본당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동합의성에 대해 본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발표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원고를 읽었을 때 나름대로 정리되었던 것이 다시 흐트러지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교회 내 평의회라는 제도적 관점에서의 공동합의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방동 본당에서 사목위원과 사목회장으로서 20여년 활동한 경험이 있고 지구내 본당, 총회장단 모임도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목활동 과정에서 단체와 사목회 또 사제와 사목회(단체 등)간 갈등에 대해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방동 성당은 소공동체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본당의 하나이지만 공동합의성 관점에서 보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으며,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팩트를 중심으로 공동합의성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사목위원들이나 단체장들이 본당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교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여러분 많이 들어 보신 말씀이죠? 그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공동합의성의 기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성찬례,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평의회 조직이 작동되지 않더라도 별 문

1) 여기부터는 녹취한 내용을 풀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2) 성서학박사, 한남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평신도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제없이 교회공동체가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하느님 백성인 교회에는 인간적인 요소와 신적인 요소가 같이 있는데, 인간적인 요소와 관련되는 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로 간의 경청과 대화하는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갈등과 대립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목위원이나 단체장을 하다가 다른 성당으로 옮겨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나 냉담하는 신자들,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신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공동합의성 문제에 대해 크게 주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 교수님께서 공동합의성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당에서 공동합의성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사목협의회나 사목평의회 구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교구 15지구에는 본당이 13개 있습니다. 그 가운데 2~3개 본당은 사목협의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목협의회 자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공동합의성이 교회 내에서 착근하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목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목 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15지구 영등포·금천구의 경우, 전체 지역 인구 62만 명 중에서 외국인이 18%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외국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목위원, 단체장 가운데 외국인이 있다는 소리 들어 본 적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 신자들이 교회에 거의 나오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일 겁니다.

구성원의 다양성 문제도 있습니다. 사목위원을 보면 대부분 50~60대입니다. 20~40대가 거의 없습니다. 특정한 구역, 특정한 아파트, 특정한 단체 중심으로 사목위원을 구성하는 본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대방동 본당을 보면 사목회 구성원들의 나이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사목회를 구성했던 적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편 사목회의에서 사목위원들이 논의하는 주제나 안건을 보면, 최 교수님의 지적처럼 복음 선포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목회 차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 이제는 교구 차원에서나 평신도협의회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당) 사목평의회가 자문기관이라는 점인데, 자문이긴 하지만 (사목평의회가 결정한 것을) 실제로 본당 차원에서 수용해서 제대로 지키는 때도 있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목회 의견이 수용되는 경우에, 사목위원들이 보다 더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안건도 찾아서 논의하고 실현해가려던 기간도 있었던 반면에, 단순히 자문에 그치고 신부님께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시기에는, 사목위원들이 중도에 그만두거나 사목회의 자체가 거의 열리지 않는 때도 있었습니다.

한편 사목(평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지키기도 하지만 중간에 편익에 따라서 신부님 들께서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목위원들이 중간에 이탈하거나 사목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사목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도 사제들이 새로 부임해 오면 어떤 분들과 함께 사목평의회를 구성해야 하는지 막막해 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전임 사제가 임명하신 분들과 1년을 같이 가기도 하고, 아예 구성하지 않고 1년을 지나고 나서 구성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본당 내에 인력풀을 사전에 구추하고 사제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사목평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기준이나 기본적인 요소들을 나름대로 정해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적어도 주1-2회 정도는 평일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내 평판이나 조직관리 능력 그라고 신심 단체 활동 유무 등등 나름의 기준을 정하고 매뉴얼화 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사제와 사목평의회 위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 공동합의성에 대한 교육과 함께 경청하고 대화하는 습관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준(사회): 예, 오랜 사목평의회 경험을 중심으로 하셔서 사목평의회에 대해 조목 조목 체계적으로 잘 짚어주셨어요. 사목평의회가 존재하는가. 사목평의회가 존재한다면 다양성의 문제, 노령화의 문제, 평준성의 문제가 있고. 또 사목회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자문에 머무르지 않았는가. 그것을 잘 이뤄내기 위한 시스템이나 체계성의 문제, 교육의 문제, 삶의 방식의 문제까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질문하고 약간 겹치는 것이 있어서 자유토론 때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목위원 입장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유경 아나스타시아 자매님께서 여성 평신도 입장에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하유경(여성): 저는 글을 처음에 받고 읽고 나서 느낌이 '아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시노달리타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교회 안에 이미 이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게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즉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성직자중심주의에 대해 경종을 울리시고 지역교회 역할을 강조하시는 이런 변화 안에서 같은 맥락으로 함께 공동합의성이 중요한 키워드로 이야기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여성 대표라고 나오긴 했지만, 여성보다도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더 많습니다.

국제신학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서를 발표한 이유는 (개념의) 중요성 때문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해명하기 위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 교수님도 공동합

의성이 “교회 민주화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의사결정이 다수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의사결정 방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사목)평의회 위원들의 준비가 부족하고 (사목평의회 기능이) 약화하고 실패한 원인으로, 평의회가 의무적이지 않다, 참여 의지가 약해졌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왜 참여 의지가 약해졌을까? 왜 실패했는가를 먼저 더 잘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주셨던 인용 중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제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평의회 주재자가 가진 권리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있었는데, 사목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반대로 평신도들은 (사목평의회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왜 여기에 참여했는데?” 하며 참여 의지가 약화된 것이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직무에 따른 차별성 이야기를 꼭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 왔는지를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라는 입장에서 설명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평의회를 주재하는 분은 목자이고, 거기에 참석하는 평신도들은 거기에서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구나’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에 나오는 예를 드신 것을 보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교구 사목평의회에서 평신도의 참여가 광범위하고, 확고한 방법으로 작용한다면, 평의회(라는) 수단과 협력의 원천을 확장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의사결정의 방법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 교수님이 ‘교황님은 의사결정 방법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보신 걸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최근에 미국 어떤 본당에서는 전임 신부님이 갑작스럽게 선종하시면서, 그 교회의 여성 지도자에게 교구의 주교님이 본당 사제와 동일하게 사목 전망을 세우고 그것을 키워갈 수 있고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단에게는 미사 집전과 그 밖의 사목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맡겼다고 해요. 이러한 예는 우리가 삼천년기 교회를 내다보면서 평신도, 특히 여성들이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번에 열린 아마존 시노드에서 여성 수도자들이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원래 성직자만 투표권이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예외적으로 단 한 명의 남성 수도자에게 투표권을 주셨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여성 수도자들에게 투표권을 줬으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의 현실을 보자면, 저는 한국에서는 여성 사목회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이 부분은 잘못 알고 있어서 나중에 수정). 여성은 총구역장 정도만 봤고요. 교회에서 대다수가 여성 신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목회에서는 남성 신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여성들은 여전히 마르타 역할을 많이 하

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활동을 해나가야겠고, (여성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시간이 짧지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CLC라는 평신도 공동체 회원으로 속해 있는데요. 이 공동합의적 교회를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저희 공동체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저희는 온전히 평신도들로 구성된 공동체로 이냐시오 영성을 따르는데, 이냐시오 영성은 아시다시피 식별의 영성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식별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가는 과정을 보면 기도와 식별의 과정에 있어서 기도와 나눔과 그 안에서의 경청입니다. 그 나눔은 진실한 자기 안에서의 개방이 전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늘 준비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잘하고 있고, 성공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공동합의성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나눠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공동체 예를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모두 평신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저희 안에 신부님이 계시지만, 지도신부님이 아니고 협력신부님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 안에 같이 계시면서 동일한 그것을 같이 식별하십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권리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고 할 때 권한을 그분 혼자 가지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함께 식별한 것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분화된 공동책임 성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동 식별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다들 가지고 있고요. 그 몫에 따라, 자기 몫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식별에 대한 의식이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가 식별한 것이기 때문에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식별했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하나는 교육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저희는 교회 문서라든지 세상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공부나 영성적인 부분에서 나눔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공동합의적인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책임을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게 얼마나 큰 은총의 초대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책임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그것이 성직 직무에 우리가 뭔가를 전가하거나 권력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것을 서로를 위해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주원준 사회: 네 하유경 자매님께서 여성 평신도 입장에서 여러 이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목회에 여성 회원이 적기는 하죠. 질문 중에 비슷한 게 있는데, “평협 회장님들 중에서 여성이 계십니까?”가 있었습니다. 이따가 토론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냐시오 영성을 열심히 따르는 평신도 단체 입장에서 영신수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평신도 신학자에게 강의를 듣는 것은 조금 되어 있지만,

평신도들에게 영신수련을 받는 것은 아직 낮은 상황 같은데, CLC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수녀님 신부님보다 잘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영신수련을 받으면서, 물론 사제나 수도자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노달리타스를 생각하며 이런 부분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우리의 결실일 것 같고요. 다음으로 수도자의 입장에서 손정명 체칠리아 수녀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손정명(수도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공동합의성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수도자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 본당에서 본당 수녀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 본당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에는 한남동에 있는 외국인 성당에서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당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준비해온 것을 읽는 게 괜찮겠지요?

우선 최 교수님께서 ‘공동합의성’ 문헌을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하는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공동합의성 문헌은 공동합의성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일치 노력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 일치는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일치, 갈라진 그리스도인들과의 일치라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고, 공동합의성 문헌 역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갈라진 그리스도인들 간의 일치는 조금 언급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가톨릭교회 안에서의 일치를 보는데, 특별히 직접 관련되는 것은 본당이잖아요? 그래서 본당 상황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본당에는 공동합의성의 실천을 위한 사목협의회가 아주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상황은 공동합의성 문헌에서 기대하는 것에 잘 맞다고 자신 할 수는 없습니다. 본당의 각 단체에는 많은 평신도 봉사자들이 존재하며 공동합의적 삶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사제와 평신도 또는 평신도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는 곳도 종종 나타납니다. 다양한 이유 가운데 흔히 성직자 중심주의나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대화 부족, 그리고 평신도들 간의 대화 부족 또는 인간적 미성숙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목적 지향에 따라 본당이 운영되고 있는가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사제들의 착한 목자 영성이 심화되면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사제를 단순히 성사를 집전하는 기능인으로서 이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목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1990년에 이태리 북부 모데나에서 목자와 양 떼를 직접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넓은 초원에서 수백 마리의 양들이 풀을 맛있게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목자가 뭐라고 하니까 양들이 귀를 모두 쫓긋 세우며 조용히 듣고 있었

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합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신기해하니까 목자는 저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양몰이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쿵쿵 치라고 해서 그대로 하니깐 양들의 귀가 역시 쫓긋 세워지면서 모두 저를 향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겁이 났지만 계속 서 있었는데 저에게 가까이 오던 양들이 자기 목자가 아님을 알고 즉시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싫어서 동행했던 수녀님께 사진을 빨리 찍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진을 언뜻 보면 양들 중앙에 있는 목자처럼 제가 보이지만 실제로 그 양들은 저에게서 등을 돌리고 멀어지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사진 찍는 순간만이라도 등을 안 돌렸으면 고마웠을 텐데 하구요. 이어서 목자의 양몰이 사투리를 어설프게 흉내 내니까 괴상한 소리에 양들의 귀가 모두 초긴장 상태로 듣다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뒤에 다시 풀을 뜯었습니다. 목자가 신호를 보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깐 모든 양이 즉시 귀를 쫓긋 세워 목자의 소리를 확인한 뒤에 무리를 지어 따라갔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떼를 지어 움직이는 그 장면이야말로 하나의 예술 중의 예술이었고 비디오로 찍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그 당시에 저에게는 사진기만 있었습니다. 목자는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짧고 가느다란 막대기는 방향을 제시하거나 양 떼를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긴 지팡이는 양들이 이동할 때에 목자가 땅을 치면서 인도를 하면 양들은 그 진동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양들은 늘 고개를 숙이고 이동하기에 비록 눈으로 목자의 존재를 확인하지는 못해도 지팡이의 울리는 소리를 듣고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제가 본 여러 그룹의 양들은 언제나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늘 배가 고프는 겁니다. 양들이 이동하면서 지나간 도로변에 있는 화초들은 거의 무참하게 다 뜯겨서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와 양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소리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있고, 목자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풀밭과 물을 찾아 양들을 인도하고 그것으로 양육하며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름의 고유한 역할수행 속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착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유일한 목자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목자였고 라헬 역시 소녀 시절에 이미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목자의 세계에서는 남녀노소가 모두 목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은 본당 사제는 예수님의 양이며 또한 목자이고, 본당의 사목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의 봉사자들 역시 착한 목자 예수님의 양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거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동료 양들과 함께 걸어가는 작은 목자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났던 양 무리의 특징은 목자와의 깊은 친교 속에 목자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목자의 지시에 아주 민첩하게 따르는 것이었구요. 따라서 본당의 성직자들과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착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친교의 삶을 살아 자신의 영적 생활의 진보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끔 본당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을 포함해서 중요한 책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던 이들 가운데 어느 날부터 아주 성당과 담을 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바라보며 본당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혹시 본당 사제들을 바라보거나 또는 다른 곳에 시선이 집중되어 하느님을 멀리멀리 보내드린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시선이 집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동기와 자신의 영적 생활을 짚어보는 기회를 가끔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느님 중심인지 아니면 기도하는 것 없이 인간적 욕구 충족을 위한 활동 중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성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당 사제들이나 봉사자들은 본당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지만 사목적 열정이 거기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영성 생활을 통해 하느님 체험이 좀 더 심화할수록 그분의 양들을 돌보고 바른길로 인도하고 싶은 사목적 열정이 더욱 강하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도구로 쓰일 다양한 측면의 협력자들의 중요성을 느끼며 함께 하려는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거기에는 상호 존중의 태도와 서로에게 경청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며 이렇게 대화하는 훈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대화법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기는 힘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훈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동합의성 문헌은, 사목적 회심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지나친 성직주의와 성직자들의 세속화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고, 평신도를 성직자처럼 만들지 않으면서 복음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공동합의성의 원형적 모습을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라고 하는데, 최 교수님은 공동합의성을 짚 설명하시면서, 오직 같은 진리의 말씀,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도구로써 임하기 때문에 보통 말하는 화합주의나 타협주의 또는 다수결주의와는 다르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성품성사를 받은 직무자들의 일은 신자들의 봉사를 '종합하고 조직, 주재하는 직무'라고 했는데요. 교회현장에서는 이 성직자들의 주어진 권위가 백성 안에 세워졌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교계제도를 보통 우리는 피라미드 형태로 표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공동합의적 교회의 모습이 '역삼각형'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꼭지점이 밑으로 내려가는 역삼각형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삼각형의 정점에 권위를 행사하는 사도단을 두셨고 그 안에 베드로 사도는 반석이며 믿음 안에서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이미지는 역삼각형처럼, 그 정점이 밑변으로 가는 것입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이들은 봉사자라고 불립니다. 가장 작은이라는 의미인데요. 역삼각형은 사제들은 물론이고 본당의 각 단체 봉사자들에게도 해당하는 겸손한 태도의 이미지입니다. 사목자와 사목위원들 그리고 각 봉사단체의 공동 시선은 유일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분의 양들이 필요로 하는 점에 집중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향한 연민의 눈으로 시대의 징표를 인

식하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거나 영적, 심리적, 사회적 필요에 응답하기 위한 연민의 눈입니다. 이렇게 양들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여정에서 동반자들의 노력이 있을 때 공동합의성 공동체 실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준 사회: 네 감사합니다. 수녀님께서 준비를 잘 해주시고 굉장히 밀도 있게 정리 해주셨습니다. 제가 따로 정리할 것은 없을 것 같고, 목자와 양들의 친교와 일치와 소통과 상호 존중, 서로 일치를 위해 훈련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신 것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청년 대표로 나오신 김세진 시몬님의 논평 차례입니다.

김세진(청년): 건강 단식을 일주일째 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느리거나 작게 나오는 데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합의성에 관련된 것을 처음 제의를 받고 책을 보는데 일단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과연 공동합의성에 참여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여기만 봐도 200여 명 계시는데 청년으로 보이는 분은 1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청년들이 이런 데 오지 않은 것일까? 왜 교회에 오지 않은 것일까?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천주교 통계 연구 자료를 보니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많은 나이대는 60대입니다. 60대가 2017년에 20%를 넘었고, 2018년에는 30%가 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많아요. 대신에 청년은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10대 같은 경우에는 -5%를 넘어 계속 감소하고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하여 이유를 물어보면 인구 절벽이 왔다는 겁니다. 저도 결혼을 하지 않아 아이가 없습니다만, 출산율이 낮아져서, 아니면 청년들이 세속화가 되어서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요. 그건 교회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내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왜 교회에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가? 청년들이 나오지 않는가에서 시작해야지 그냥 단순히 '인구 절벽이 와서, 청년들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다'하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모습은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청년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청년 프로그램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시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교회가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청년들의 속내를 들어보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나눔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소그룹 나눔이죠. '교회에 가서 주도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교회에 청년들한테 전혀 내보이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30대입니다만 지금 현재, 20대 남자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강해요. 2017년 촛불혁명 이후로 우리 사회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2018년과 2019년 넘어오면서 청년

들이 반발했던 이슈가 있습니다. 2016년에 이화여대에서 미래 라이프 대학 사건(학교 측이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하자 학생들이 반발해 일어난 사건) 터졌을 때 나왔었고, 그 다음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반발했었고,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의 일을 또 반발했어요. 상당히 많은 분석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성세대는 정의나 당위성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정의로운 것, 교회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 아니면 당위성 이런 것을 보지만 청년들은 공정하고 소통에서 본질을 봅니다. 공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정의를 찾고, 공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당위성을 찾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회적인 이야기뿐만 아닌 교회 내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청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톨릭 계열 학교를 다 나왔어요.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교회 다니는 청년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은 사회하고 사회에 있는 청년들과 뭔가 달라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있는 청년들도 똑같은 외부에 있는 청년들과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지루함, 끝까지 반발심까지 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2~3년 전에, 개신교에서 열정페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 있어요. 신앙 페이와 헌신 페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재능있는 사람, 청년들의 노동력, 아이디어를 함부로 쓰고 신앙이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개신교만의 이야기냐 천주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처 입고 떠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고요. 청년들이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안 나오는 겁니다. 또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기성세대의 신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미성숙하다. 아는 게 뭐가 있느냐? 그냥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라.’ 이렇게 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청년들의 존재는 교회에서 청년의 지위는 미성숙해서 지도는 받아야 하는데, 생각은 참신하고 힘은 넘치고 일은 해야 해요. 되게 모순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런 교회에 누가 찾아옵니까? 전혀 찾아오지 않아요.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 청년들은 교회에 전혀 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모든 신자의 교회라는 공동합의성에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백성 자체가 교회의 지체로서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도 교회 한 지체로서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목회에 청년들이 들어간 것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청년들은 그냥 청년회에서 수동적으로 일하는 것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사목회의 안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야기해줄 수 있는 청년대표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교구도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 평의회 같은 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교회가 허심탄회하게 ‘이런 주제가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다가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질 청년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질의응답

주원준 사회: 질문지마다 많게는 3개까지 질문하셔서 지금 20여 개 질문을 제가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연에 관해서, 즉,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의 개념에 관한 질문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질문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개념 이야기는 최현순 박사님하고 한 신부님께서 주로 대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패널분들이 주로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질문의 양을 보니까 최현순 박사님하고 한민택 신부님한테 주로, 두 분께 제가 15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자유롭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개념에 관해서 한 8개 정도 질문이 있는데, 다 대답하지 않고 중요한 것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시노달리타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어느 문헌에 분명히 언급된 용어인가요. 두 번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50년이 지났는데 왜, 지금에 와서 공동합의성이라는 개념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혹시 50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계속 회자됐던 것이 아닙니까. 세 번째, 세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그런 개념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공동합의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큰 차이가 없다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평신도는 정치에 참여하라”고 하신 권고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개념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또 개념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은 이것이 하느님 백성과 무슨 관련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발제문을 잘 들으면 교황, 주교, 성직자를 한쪽에 놓고 다른 온 백성은 다른 한쪽에 나와서 교회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백성에 대해서 교회 가르침을 연관 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하느님 백성을 인간만이 아니라 피조물 전체로 확대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동합의성, 곧 합의하는 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다른 단어로 제안됐던 말들이나 개념은 없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함께 걸음’ 내지는 ‘동행성’이라는 말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느님 백성과 관련한 질문 말고 하느님 나라와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한민택 신부님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계속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면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하느님 나라와 관련

하여 조금 더 실천적인 개념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성직주의를 쇄신하는 방법으로서 공동합의성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즉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초 개념에 관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관한 질문이 몇 가지 있었고, 하느님 백성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 하느님 나라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용어에 관해서 새로운 용어를 생각해볼 수 없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박사님하고 한 신부님께서 같이 어떤 코멘트를 어느 정도 해주시고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재미있게 시간 지켜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쳐 드립니다.

최현순 박사: 용어 부분은 제가 앞서 했던 지난 발표 때 좀 다뤘었는데 오늘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혹시 필요하실 경우 평협에 말씀하시면 앞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고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합의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나오는 단어는 시노두스(synodus)와 콘칠리움(concilium), 그리고 콜레지움(collegium)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의회 당시 시노두스와 콘칠리움은 공의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가톨릭교회는 두 단어의 의미를 구분합니다. 콘칠리움은 보편공의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입법 및 행정적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시노두스는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하느님 백성이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모으면서 교회가 받은 사명을 실현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전 세계 주교 시노두스가 있고, 각 교구에서도 <교구 시노두스>를 개최합니다.

시노달리타스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콜레지움, 곧 주교단 개념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중세 이후 특히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지나칠 정도로 교황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약 100년 정도 기간동안에는 심지어 주교의 권한까지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선포한 대로 교황이 가진 고유 권한을 재확인하면서도, 교회가 전제 군주국가가 아니라, 교황이 형제들인 주교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교황을 주교단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물론 가톨릭교회의 최고 권한이 교황에게 있지만, 동시에 이 최고 권한은 교황이 포함된 주교단에도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상 가톨릭교회의 최고 권한은 교황과 주교단에 있습니다. 콜레지움 개념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걸 의미했었고, 이후에 콜레지움 개념으로부터 단체성 콜레지알리타스(collegialitas)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그 구성원들이 함께 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생각에서 공의회 직후에 교구마다 세워진 사제평의회, 사목평의회, 각 본당에 있는 사목협의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콜레지움 정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 백성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거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공통된 품위와 공통된 목적과 공통된 책임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하느님 백성’ 개념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부터 1985년까지 전체 가톨릭교회에 핵심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 정치적 의미로 이해되어 민주주의와 혼용되는 일이 일부 지역에서 있었고, 이로 인해서 사목자들이 신자들의 사목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85년 공의회 폐막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세계 주교 특별 시노두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을 ‘친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해하였으며, 이후 교회론에서도 하느님 백성 개념보다는 친교의 개념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나온 요청이 교회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 백성, 친교의 개념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써 시노달리타스 곧 함께 가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점차 나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동안 콜레알리타스와 시노달리타스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콜레지알리타스가 주로 교황 및 주교님들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체 백성이 함께 가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시노달리타스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왜 지금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미 아시겠지만, 서구에서는 가톨릭교회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유럽은 물론이고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원래 라틴 아메리카는 90% 이상이 가톨릭교회 신자였었지만 지금 급속도로 줄고 있어서 신자 수가 7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개신교로 넘어가고 있고 또한 젊은이들은 가톨릭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황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교회 자신이 자신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걸림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김세진 형제님이 말씀하신 외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더 심한 것은 내적 부분이거든요. 걸림돌이라고 교황님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성직자주의(clericalism), 권위주의입니다. 거기에는 개인주의도 들어가 있고 공동체의 와해도 들어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는 교회 고유의 사명이 있거든요. 급속도로 하느님에 대한 관심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교황님은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공의회에서 기초한 개념으로 시노달리타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서 한 발표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만, 질문하신 내용에서 구분이 필요한데, 정치 참여와 시노달리타스를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오로 6세는 정치에 관심 많았던 분인데,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정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가톨릭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권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은 항상 하느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를 바꾸는 데 지속적으로 관계된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도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복지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치 참여를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시노달리타스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굉장히 유사점이 많지만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시노달리타스의 목적 자체는 항상 하느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느님이 목적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하루 전인 1965년 12월 7일 공의회 문헌 발표한 다음에 강론 때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새로운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에서는 인본주의를 근거로 해서 신중심주의를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새로운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인간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회가 지향하는 것과 가톨릭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정치 참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하느님 백성과 관련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 백성을 가톨릭교회 신자로 한정하는 폐쇄적 입장을 극복합니다. 보통 하느님 백성이라고 정의할 때는 ‘주교로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세례 받은 모든 사람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교회 신자만 하느님 백성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헌장 14, 15, 16, 17항에서 하느님 백성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가톨릭교회에 (구원에 이르는) 충만한 도구가 있다는 점, 즉 성사, 성찬례, 말씀의 선포, 다양한 구원의 도구와 희망이 있다는 점에서 가톨릭교회가 고유성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가톨릭 신자와 비 가톨릭 신자는) 하느님 백성에 속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의회는) 가톨릭 신자가 하느님 백성에 속해 있고 비그리스도인도-여기서 말하는 비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하느님 백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백성에 사람 말고 다른 피조물도 포함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단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인격체가 포함되어 있겠죠? (웃음) 하느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인격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다만 피조물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교회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하느님의 마지막 이 세상 완성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완성에는 사람들의 완성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페소서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피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창조의 완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백성이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하느님 모상으로서 품위를 지닌 인간을 일컬을 수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를 공동합의성으로 번역한 용어 번역 문제는 사실 ‘합의’라는 말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셋(번역자 셋)이 논의도 하고 같이 이 부분을 사실 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적합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찾는 과정에서 같은 동양어권,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았는데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공동합의성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신학적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가운데서도 ‘동행

성' '함께 걷다' '동반자성' 이런 용어들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시노두스라고 그냥 쓰는 것처럼 일단은 시노달리타스로 그냥 쓰라는 의견도 나왔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말로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시노달리타스 그대로 두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바꿔야 한다면 논의를 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양에서는 이런 중대한 단어 같은 경우는 몇 년씩 신학의 각 분야 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많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원준(사회): 박수 한번 주세요.

한민택 신부: 논평 시작될 때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잘 모른다고. (웃음) 저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왔고요. 앞에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최 박사님이 해주셨고요. 저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실천적인 개념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글썄요. 하느님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한번 같이 떠올려보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면 분명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가장 비참한 삶의 현장이었고 죄와 악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사랑과 자비를 (사람들의) 삶과 마음에 (지피시고), 가시는 곳마다 죄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을 동일시하십니다.) 단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뿐 아니라 현실 안으로 들어가 시면서 외적 치유나 기적만이 아니라 내적인 치유인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회복과 함께 사랑과 희망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파괴되고 나누어졌던 삶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재건되고 회복되고,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현되는 하느님 사랑, 그 사랑을 통해 나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하느님의 백성, 자녀로서 뿌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한 번에 내 삶 안에 하느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굴곡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내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과정까지도 아마 하느님 나라에 포함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를 통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가 (하는 물음과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신 가장 비참한 삶의 현실이 먼저 우리 안에서 기억되어야 할 것이고, 수녀님도 가난한 이들을 말씀하셨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악의 지배, 그로 인한 삶의 파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박탈, 이런 걸 겪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말씀 선포와 성사 거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현실화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아마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하느님 백성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죄와 속박이 아닌 하느님 사랑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활동이 우리들의 삶의 방

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서양의 인간 중심주의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양도 많이 반성하고 새로운 인본주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그릇된 소비로 인해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데,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나눠 주신 다회용 물병을 사용함으로써, 또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파괴된 생태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노력에 동참하는 것 역시 하느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작은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성직주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노달리타스를 성직주의 쇄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자리에 한 분이 빠졌어요. 권위주의적인 신부님이 여기 오셨어야 신부님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텐데). 저는 권위주의적이지도 않고 겸손하고 (웃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미래 사제를 양성하면서 이 부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강의할 때마다 최근에는 시노달리타스를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원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부터 이런 공동합의성(이 실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주로 신부님들이 먼저 얘기하고 신부님들이 중장기 발전 프로젝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신학생들 목소리가 빠져있어요. 대부분은 설문을 통해서 신학생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듣는데 실제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의 발전이나 미래상을 구체화 시키는 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성되는 학생들은 분명히 신부가 돼서 아마도 백성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신학교에서부터 공동합의성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원준(사회): 두 분 말씀을 들었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해서 패널 네 분 말씀을 들을 텐데. 패널 네 분한테만 간단하게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한 분께서 하나 내지 두 개의 주제를 정해서 10분 정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말씀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질문했는데 대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할 수 없습니다. 아마 대답이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계속 교회 생활을 하면서 추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감을 받아 가시거나 지식을 배워 가시거나 하는 자리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특이한 질문인데요. 너무 특이해서 앞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목평의회나 이런 걸 구성하는 데에 미혼 평신도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기혼 평신도로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미혼이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혼 평신도를 넣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었는데, 특이한 질문이라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직주의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여러 개 나왔습니다. 우선 ‘과거 성당에 다니면서, 신부님의 독재적인 태도와는 반대로 평신도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신부님이 비상식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 굉장히 많이 질문하셨는데, 가톨릭 학교

나 교회 기관 중에 사제의 일가친지들에 대한 낙하산 인사에 사제가 관련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우리는 교회가 상하 구조가 아니라 원 구조라고 배웠지만 정작 이러한 것은 사제 쪽에서는 인식하고 있지도 않은 것 같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평협에서도 평협 회장 이미지라고 하면 중년 남성 이미지 밖에 없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수도자께서 체험을 굉장히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수도자들의 체험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합의적 원리에 따라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대화와 협력 말씀과 성령의 경청, 빵의 나눔을 통한 친교와 나눔, 동등한 품위와 형제애, 상호 존중, 환대, 관대함과 인내 등이라고 말하고 있고 저도 그래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고 60년이 넘게 가톨릭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20세가 지나 수녀원에서 생활하면서 최 교수님께서 그리고 한 신부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 과연 교회가 이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참 좋다는 느낌보다는 답답함이 더 컸다고 봅니다. 위의 부분이 잘 실현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며 참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이 극복되어야 기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수도자분의 글인데 너무 길어 제가 잘라서 조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서울에 1년 공부하러 나와서 본 그 사람은 남대문 시장에서 더운 날씨에 기어가면서 성가를 틀고 가고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잘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신부님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하고 물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남대문시장 가톨릭상인회가 있겠죠? 그 바운더리에 불쌍한 형제를 위해 상인들 모두 힘을 합쳐 월체어라도 사서 도와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형제의 사정을 잘 아는 상인 형제님들의 가장 잘 알 것 같고요. 어쩔 조직폭력배가 연관되어 집에 갈 때는 자가용으로 데려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도 자유가 없으면 정착이 안 되고 아무튼 교황님께서도 “거리에 나가서 더럽혀도 좋다.” 하시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나가라 말씀하셨죠. 몇 년 전 교황님은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도 있으시죠. 어쨌든 노숙자를 위해 샤워 시설도 해주고 교황청에 교황님 생일잔치에도 초대했지요. 우리 교회가 나라가 어떻게 기어 다니는 형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서울 평협에 있는 분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구요.

그다음에 아주 단순하게 ‘공동합의성 실현을 위해서 본당에서 수도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도적 개선책으로 사목평의회를 제안하셨는데 사목평의회로 능동적 참여의 보편성을 기대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도 사목평의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 경우가 더 많았으며 문제는 모두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

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전례를 모국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좀 더 확실한 제도적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 실천적 활동 양식, 방식은 없습니까. 구체적 실천 방안을 좀 더 열린 창구로 가장 밑바닥, 시골 청년과 도시 노인까지 목소리를 수렴하면서 조사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 구성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공동합의성의 한 축을 이루는 평신도들의 소명도 책임도 다 있는데 이를 의식하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영성,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교육이 세례 이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당에서 신자 대부분에게 하는 교육과 가르침에서, 교구에서 수도회에서 이런 영성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획만이 아닌 실천적인 면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은 교육과 영성을 함께 보는 건데요. 질문지에 아까 개념 얘기할 때 시노달리타스와 평신도 영성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많지요? 하나하나 대답만 해도 오늘 시간이 모자랄 텐데요. 일단 네 분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것, 꼭 이것 관련되지 않아도 좋은데, 10분씩 드리고 시간이 다 되면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말 하는 시간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이병욱 회장님.

이병욱(본당):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아마 기혼 평신도를 사목평의회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사실은 사제 분들은 대부분이 결혼한 남녀 신자를 선호하세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부부들은 부부간에 대화하다 보면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풀어나가는 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신부님들과 대화를 훨씬 원활하게 해준다는 것을 신부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사제 중에는 요즘 ME 교육에도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신자들에게 대한 독재적인 태도를 말씀하셨는데 사제들이 대부분 독선적인 성향이 있어요. 과거에 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독선적인 신부님이 오면 (사목위원들이 활동하기) 싫다고 해서 어려움이 생기는데, 사목회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사제의 독재적인 태도에 (대응하는) 노하우가 많아요. 신부님과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목회 주요 간부들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방식으로(건의하면 됩니다). 사목회 회의 때에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사목위원들과 신부님 사이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사목회장 할 때였습니다. 새 신부님 오시면서 소공동체 운동, 말씀 운동을 하겠다 하셨는데, 신부님께서 교육관을 새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재정 면에서 관심을 더 많이 쏟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이 본당의 사목이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저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말씀 공동체 잘하고 있는 제기동이라든지 창동이라든지 신자들하고 협업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해서 풀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말씀 나누기

를 하기 위해서는, 듣고 진행해야 하는데 (신자들은) 그런 것들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교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고 또 같이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준비가 거의 2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때서야 신자들이 이해하고 신부님 말씀을 따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인내의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모르는 것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사제와 사목 위원들이 어떤 계획을 갖고 수립하는 데에는 사전에 시간을 갖고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이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원준(사회):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다음 분은 패널 중에서 어떤 분이 하실까요.

하유경(여성): 평협에서 여성회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여성 대표로 나왔지만. 교육에 관련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가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을 신부님들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 질문이 평신도 양성 교육과 가르침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지 두 가지 질문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공의회가 50년이 되었지만, 공의회에 대한 가르침을 신자들이 들을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변화되었지만 실제로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대부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잘은 모르지만, 신학교의 교육 자체에서도 평신도 자체에 대해 배우실 기회가 없대요. 공의회도 마찬가지로 공의회 내용들... 어떻게 보면 본당 신부님들이 신자들한테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거나 알려주실 수 있는 만큼 여력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신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부님께 건의하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 이런 걸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바티칸 공의회에 관한 강좌들이 여기 평신도협의회에서도 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신자들 교육 수준 자체는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대졸자도 많고. 그렇지만 교회에 관한 공부, 신학에 관한 공부를 할 기회가 없는데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강좌가 여기저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진 않잖아요. 그것이 영성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삶에 분명히 들어와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신도들이 스스로 양성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떠먹여 주지 않나 이런 것보다는 부지런히 다니시고 스스로 계몽할 수 있도록 옆에 많이 알려주시고 교회를 스스로 자꾸 바꿔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인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준(사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어느 분이 해보실까요.

김세진(청년): 사목평의회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그리스 시대처럼 모든 사람

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무슨 사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거나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
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목평의회라는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사목평의회에 평
신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본당의 일이나 사목적인 일을 논의하면서 하는 것
이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사목
평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도 보시면 기혼 평신도를
꼭 넣어야 한다고 해서 사실 속이 상했습니다. 미혼이라서. (웃음) 근데 이제 기혼 평
신도도 넣고요, 청년도 넣고, 여성 평신도도 넣고요. 다양성이 보장된다면 사목평의회
도 잘 이끌어질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2017년 이후에, 지금은 좀 가라앉았는데, 좀 높았던 게 속의 민주주의라
는 게 있었습니다. 공동합의성과 거의 비슷한 건데, 교회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속의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오가는 것을
통해서 접점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속의 민주주의 내에서 보이는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동합의성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면 사목평의회 이상의 모든
본당공동체, 모든 교구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의견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원준(사회): 감사합니다. 수녀님.

손정명(수도자):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 구조를 상하가 아니라 원형이라고 했는데 설명
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해요. 원뿔 구조 있지요. 세례받는 모든 이는 품위 면에서 동
등하다. 그래서 밑이 똑같고 평신도나 주교나 사제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를 이끌어가는 기득 면에서는 조직이 필요해서 피라미드형이 나와서 원뿔형으로 표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사목회장이 여성도 있느냐 하셨는데 제가 여러
명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사목위원에도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것은 좋은 추
세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세진 형제님 말씀하신 것 참 좋은 생각인데요. 저는 가난한 이들을
대해서 경청을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보통 내가 생각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뭐가 필
요할까 생각하고 주지만,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들어주는 일입니다.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 준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두 손으로 존중하면서 주스 하나라도
주면은 그걸 못 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호 존중인 것
같아요. (단순한 물질적 가난) 이면에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해서 나누는
것, 그런 방법이 우리가 지금 마련한 것을 실천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
다. 가난이라는 대상이 꼭 평신도뿐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수녀님들도 말씀하셨잖아
요. 수녀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자들도 수녀님 입장에서 생각
해보시고, 수녀님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자분들뿐만 아니라
신부님들도 어떤 면에서는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 번 우리가 생각

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가난한 이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적 심리적으로 가난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수도자지만 본당에서 수도자로 있는 것 쉽지 않거든요. 다 아시죠? 짐작만 하시죠? 근데 본인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다 집의 귀한 따님이세요. 근데 하느님 때문에 와서 본당에서 일생을 바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자들한테도 상처 당할 수 있고 신부님한테 상처 당할 수 있고 같은 수녀 처지에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수녀님도 신부님한테 모든 시선이 다 가 있는 것 아닌가 해요. 어떤 때는 그걸 요구받기도 해요. 그럴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수녀님들 상황이 그렇더라도 조금만 부분은, 삶의 한 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조금이라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들면서 취미 생활 개발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요즘 펜드로잉을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루의 얼마 동안 시간을 할애하면 본당에서 힘든 것들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부님들과 관계에서 어려운 수녀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본인의 입장도 있지만 글썽 신부님들이 수도자, 본당 수녀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기본이 아닐까요? 한 신부님? (웃음) 우리는 그냥 사목자가 아니라 수도자예요. 수도자가 첫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목을 하는데 수도자로서 살아야 하는 규칙이 있어요. 기도 생활은 언제 하고 공동체 생활 어떻게 하고 수도원 활동을 어떻게 하고... 근데 본당 신부님들이 본당 수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수도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본당에서 수녀님한테 무엇을 기대하는가. 기대치가 혹시 너무 과한 건 아니신가. 어쨌든 옆에 한 신부님 옆에 계시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자들에 대한 사제들의 인식은 바로 신학교 교육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신부님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주원준(사회): 이제 신부님이 대답을 해주실 텐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시간도 거의 다 됐고요. 플로어에서 질문은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받을 질문이 다 나오기도 했고요. 공지사향을 말씀드리고 모든 분한테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하실 시간을 드리는 게 남은 시간을 활용하는데 현명할 것 같아서 사회자의 권한으로 그렇게 할 텐데요. 지금 공지사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신도사도직연구소에서는 오늘 토론까지 포함해서 보충자료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 보충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정보처리법이 있어서 개인정보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셔야 해요. 나가실 때 사인까지 하시고 나가시면 오늘 토론된 걸 정리해서 그것까지 보내드리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부님한테 갔습니다. 신부님부터 말씀해주시고 마무리 멘트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분 내외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민택 신부: 제가 수원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인데요. 다행히 올해부터 신학교에 수도

생활 신학이라는 과목이 생겼습니다. 짧지만 그래도 수도 생활이 어떤 것이고 수도자들이 본당이나 여러 곳에서 경험한 것들을 들어볼 수 있는 과목을 개설했는데 이것은 수도장상연합회가 주교회의를 통해 각 신학대학에 요청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긴 시간 동안 주저하다가 제가 밀어붙여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붙이면 성직주의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제가 처음 되었을 때 사제들은 순수하고 정말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본당에 파견됩니다. 가끔 새 사제들이 와서 왜 우리가 청소년 사목을 맡게 되는데 왜 신학교에서 우리에게 준비를 하나도 안 시켜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목 현장에 가면 너무 낯설고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엔 본당 주임신부님이 계셔도 큰 본당의 어떤 책임을 맡으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사제도 나약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새 신부님이 부임하시면) 본당 사목회 모임을 하기 전에 신부님이 현실을 제대로 아실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소위원회 비슷한 것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시면 독단적인 일들이 훨씬 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현순 박사: 예. 저는 한국교회 신자들이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쁩니다. 공의회를 공부하고 와서, 평신도나 공의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아~ 아직 이것을 모르고 있구나’ 하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이 공동합의성 논의가) 행사성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행사성조차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고 공의회 정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또다시 말 잔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런 말 잔치조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 안에 이제 공의회 정신, 공의회 가치가 정립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모임이나 활동이 필요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국교회의 평신도들은 - 물론 제가 전 세계를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평신도들이 갖지 못한 귀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런 열성에 공의회가 요청한 자발성, 능동성, 주체성, 등등이 결합되었을 때에 전 정말 한국교회 신자들이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가톨릭교회 신자일 거라 확신을 하거든요. 이미 충분한 내적 바탕이 있기에 여기에 공의회 가르침이 접목되었을 때 분명히 한국 교회는 어려움에 있는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모델로서 확신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일부에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노력해 나가면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이렇게라도 해나간

다면 언젠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개혁은 한 사람이 확 바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을 지니고 자랑스럽게 이 공의회 정신도 공부하면서 우리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들을 찾아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물론 저도 제 몫을 해야겠지요.

이병욱(본당): 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못해서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합의성의 기본 뿌리로 말씀과 성찬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대방동 공동체가 사실은 우리 전체 서울교구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본당에는 하루에 세 차례 미사가 있어요. 저는 매 평일 미사에 참례하는데 미사 참례를 계속하다 보면 신자들이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능동적이 되고…그런 측면에서 신자들이 가능하면 평일 미사에도 참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이라고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 대화와 토론인데 교회 내에서는 나름대로 토론이 이루어지지만, 교회 밖의 신자 아닌 사람들하고는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사실은 단체 중에 있어요. 빈첸시오회라고요. 빈첸시오회원들은 우리 신자뿐만이 아니라 신자가 아닌 분들하고도 소통하는 분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 특히 어려운 분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공동합의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하는 본당의 사례, 단체의 사례, 모임의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교회 내 사제들이나 교회 내 단체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평신도사도직연구소의 역할이지만,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앞으로 공동합의성에 한 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세진(청년): 제가 바닷가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요. 바다 근처에 간첩들 넘어오지 말라고 해안에 철책이 짝 쳐있었어요. 10여km 쳐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철거되더니 지금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교회 내로 지키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철제 울타리를 다 하나씩 하나씩 무너트려 가면서 모두의 교회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공동합의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모두 마음속에서 모두 신자들 마음속, 신부님들 마음속, 수도자들 마음속에서 그런 철조망들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에 따라 철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력이 너무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원준(사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유경(여성):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해주셨지만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이셨다는 거, 누구의 교회인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게 시대의 징표 같아요. 그리고 이 공동합의성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분, 이끌어가시는 분이 성령이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부족한데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손정명(수도자): 저는 떠올랐던 것이 목자였습니다. 저희 수도원이 ‘선한 목자 예수’다 보니까 맨날 목자와 양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합의성 이야기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목자 영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에 이걸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미지를 목자와 양, 먼저 목자와 양에는 서로 경청하는 귀가 있었어요. 목자, 양, 귀. 그다음에 공동합의성에 대해서 아까 원뿔을 이야기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역삼각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역삼각형은 이런 형태가 되겠지요? 이런 이미지로 공동합의성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원준(사회):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시노달리타스 사회를 맡으면서 늘 느끼는 건데 사제는 사제 입장에서 수도자는 수도자 입장에서 평신도는 평신도 입장에서 상처 받고 아쉽고 속상한 경험들 꼭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것을 관찰하면서 아 속상하고 아쉬운 경험은 열심한 신자들의 징표 같아요. 교회에서 속상하고 아쉬운 경험이 없으면 열심한 신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 평협 회장님 모셔서 안내 말씀 들으시고 마침기도 하겠습니다. 손병선 회장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선 회장: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지정토론, 패널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몇 가지 질문사항 보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평협에 여성회장님들 계시냐는 질문도 있으셨는데 아직 우리 한국에는 교구의 평협 회장님들 가운데는 없으시지만, 지난번에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0주년 추모 행사하면서 홍콩 평협 회장님들을 모셨는데 그쪽에서는 여성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여성연합 회장님더러 “한국에도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시라.”라고. 아마 그럴 때가 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또 지난달에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에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본당 총회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도 여성의 그 역할이 앞으로 계속 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지금 사회적 인 지위, 전문직종에서도 많이 참여들 하시고 있는 만큼 교회 내 사목회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당 회장님들도 제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본당 회장 할

때만 하더라도 3~4분 되었지만 지금 현재 233개 본당에서 3%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10명까지는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주교좌 본당이면서 한국 교회의 상징성이 있는 명동 총회장도 직전 총회장님은 여성이셨습니다. 그리고 속인 본당으로 가장 최근에 생긴 청각 장애인들 본당인 에파타본당 총회장도 여성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은 확대해 나가고 각 본당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주사목, 다문화 가정의 참여 부분 역시 저희도 금년에 키워드로 삼아 제주와 광주에서 심층 토론회도 하고 여러 나눔 기회를 마련해 작은 도움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여기 수원평협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본인이 다니시는 본당에서 이주 사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본당의) 신자 비중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지구에서 회장을 하셨던 이병욱 패널께서도 알고 계십니다만, 영등포와 대림동 같은 곳은 지금 아마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이 거의 다 차지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도 각 교구의 주보를 보시면 교육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그런 참여자 교육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참여자 수는 줄고 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본당에서는 봉사자들이 부족해지니까 본당 밖으로 내보내는 걸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구에서 하는 교육, 우리 평협에서 하는 교육만 해도 공의회 과정이랄지 어머니학교 등 다양한 아카데미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도 참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교육도 많아지면서 그렇기도 하지만 본당에서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세진 청년 패널의 경우에는 사시는 본당이 인천교구에서도 좀 작은 본당, 열악한 본당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본당에서 회장을 할 때만 해도 청년 젊은 사목회를 별도로 운영도 하면서 청년들을 거의 사목회 예산에 상당 부분을 투입하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많은 본당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청년 대회랄지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지금 현재는 톱다운(Top-down)이 아니고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당에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시스템적으로 접근이 되고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도 본당 신부님에 따라 다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직 중심주의가 오늘 주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 인사말씀 드리면서 부산교구에서 똑같은 주제로 같은 시간에 하는데 교구장님이 신부님, 수녀님들을 의무 참석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실 정도로 이 부분을 공동 관심 사항으로 갖고 많은 교구가 지금 변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대전 교구만 하더라도 5월에 가진 시노드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또 교구별 사목평의회 운영 실태를 전국 평협 회장님들을 통해서 수렴해보니까 지금 절반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광주에 신동렬 회장님 앉아계십니다만 광주, 수원교구 등 몇 군데 교구를 보면 사목평의회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함께한 가운데 잘 운영되는 그런 교구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구들을 벤치마킹하면서 함께 변화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열린 세미나의 새로운 맛을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